

〈신용보증기금〉

信保, 한진해운 보증했다 血稅 4000억 날려

대위변제 금액 3년간 1조5400억
일시 자금부족 기업 유동성 지원
기존 건설사서 他업종으로 확대
김관영 의원 “금융위 책임 물어야”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에 지급 보증
을 썼던 4000억 원이 넘는 빚을 대신 갚아
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진해운이 올초 파
산함에 따라 빚을 갚아 주고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
관영 의원에 따르면, 신보는 시장 안정 회
사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보증을
썼던 기업들의 대출금 가운데 대위변제
금액이 내년 1조53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안정 P-CBO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7월 신보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
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
나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
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
다. 신보의 회사채 보증 대상을 기존 건설
사에서 타 업종까지 확대하면서 금융위는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만
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의 장담과 달리,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로 신보는 지난해 1322억 원
을 대위변제했다. 당해 만기 도래 보증액이
있던 1조2616억 원의 10% 수준이다. 올해는
만기 도래한 보증액 2조3427억 원 중 4742억
원, 내년엔 3조1107억 원 중 9335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것이란 게 신보의 자체 분석이다.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는 셈으로, 3년
간 총 1조5399억 원의 혈세를 기업 보증 빚
을 갚는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증 빚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동부
제철 등 3곳으로 인해 생겼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특히 파산한 한진해운에 대한
보증 빚 4306억 원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도 없다. 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의 4675억
원, 워크아웃 중인 동부제철의 1853억 원
처럼, 일단 대신 갚아 준 뒤 나중에 기업이
회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는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하
고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1년
전인 2015년 6월에도 차환을 발행해 줬다”며
“4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회수할 방법이 없
어진 데에 금융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
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스타트업 육성 앞장선다더니 규제로 발목잡은 서울시

‘출퇴근 시간선택제’ 법 저촉 이유
카풀 스타트업 ‘폴러스’ 고발 조치

던 서울시가 오히려 스타트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은 7
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인 ‘폴러스’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폴러스가 이날부터 시범 서비스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따라 폴러
스의 서비스 제공자(운전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각각 4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설정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 81조에 근거해 이를 불법으
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카풀은 퇴근 시간에 차량이 혼잡할 때 혼잡 완
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명시돼 있다. 폴러스 서비스 제공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혼잡하지 않은 낮 시간대에 카풀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폴러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수법 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료 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폴러스가 낮 시간대 서비스를 도입
한 것은 출퇴근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근무 형태에 맞춰 출퇴근 시간도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
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폴러스 관계자는 “7월 폴러스는 출퇴근 시
간선택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서비스 출시를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
록 조정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 및
ICT 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자율업이니 관에서 따로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경찰 측에 조사를 요청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김정웅 기자 cogito@

文 기다리는데…트럼프, 기상악화로 DMZ 방문 무산

국회서 北核공조·한미동맹 재확인
한미FTA 긴밀 협의도 요청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의장에
서 한 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
인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3·4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 앞서
일정에 없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
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DMZ 방
문 시도는 전날 가진 한·미 단독정상회담
에서 양국 정상 간 대화에서 이뤄졌지만
기상악화로 헬기가 착륙할 수 없어 취소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중간 지역에 먼
저 착륙해 차량으로 이동, DMZ에서 트럼
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날씨 문제로 취소
돼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DMZ
방문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
결속 강화와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
한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
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 전인 오전 10
시 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정세균 국회의
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회의장 접견실
에서 10여 분간 사전환담을 했다. 이 자리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굳건한 한미 동맹 태
세 재확인, 무역 불균형에 대해 얘기를 나
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전 정외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우리 국
화에서의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국제공조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얘기했다. 특히 양
국 간 자유롭고 균형적인 무역을 증진하
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긴
밀한 협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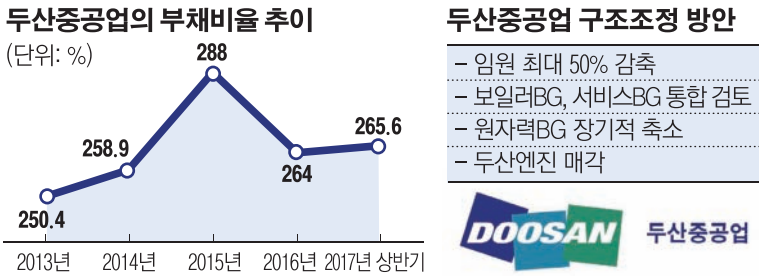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해 전날 있었던

한·미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방위비 분담과 첨단 정찰자
산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
발에 대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도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양국 간 견해차

를 분명히 밝히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마치고 바
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
충탑에 헌화하면서 1박2일간의 방한 일정
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
후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
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두산重 대규모 구조조정

임원 감축하고 사업 통폐합
엔진 매각은 日 기업과 협상

두산중공업이 문재인 정부
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
른 시장 위축을 대비해 임원
감축과 사업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8일 두산중공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원 120여 명 중 30~50%
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임원 총 상당수는 화력발전
사업 분야를 맡고 있다. 정부가 출범 첫해인 올해부터 화력발전 축소에 나
선 만큼 해당 사업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직 통폐합도 추진된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력BG(비즈니스그
룹)·EPC BG·보일러BG·터빈발전기BG·서비스BG·위터BG·주단BG 등 7
개 사업부문과 관리부문·재무관리부문·기술연구원 등 3개 사업 외 부서
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화력발전 관련 분야는 보일러BG와 서비스BG가 맡
고 있다. 보일러BG는 공사를 진행하며 서비스BG는 사후 관리를 하는 부
서다. 이 두 부문을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자력BG의
경우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내년 9월에는 신고리 4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며,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상 시기는 2022년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원자력BG 부문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의 국책과제인 가스발전 사업부문은 강화할 예정이다. 두산
중공업은 2022년을 목표로 가스터빈을 개발 중이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를 가스로 전환하면 두산중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자본 42.7%를
보유한 두산엔진의 매각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엔진
매각을 위해 일본 측 기업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외 사모펀드(PF) 운용사 등 다양한 곳에서도 두산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엔진 매각은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정다운 기자 gamja@·정수현 기자 int1000@

해외진출 속도내는 쌍용車 中 합작공장 설립 재검토…전기차와 협업도 母기업 인도 마힌드라는 美 공장 추진 계획

쌍용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국발(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산시성
합작 공장 설립이 이르면 내년 초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동 플랫폼을 추
진해온 모기업 마힌드라는 미국 공장 추
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8일 쌍용차와 외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 설립할 예정이던 현
지 합작 공장 계획을 재추진한다. 2016년
말 본격화한 합작 프로젝트는 투자자의향서
(LOI)까지 체결했지만, 중국의 사드(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탓에 1
년째 답보 상태였다.

쌍용차는 SUV 전문 메이커답게 소형
SUV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2019년에 양
산한다. 그때까지 중국 현지 합작 공장 설
립 외에 현지 전기차 업체와의 아웃소싱
(외주) 협력도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에 공장
설립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쌍

용차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는 최근 디
트로이트 근교에 40만 제곱피트 규모의 조
립 공장 건립 의사를 밝혔다. 이날 디트로
이트 뉴스를 포함한 현지 언론은 “쌍용차
와 마힌드라가 공동으로 개발한 새 모델
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마힌드라 역시 현지시간으로 20
일 북미 공장 설립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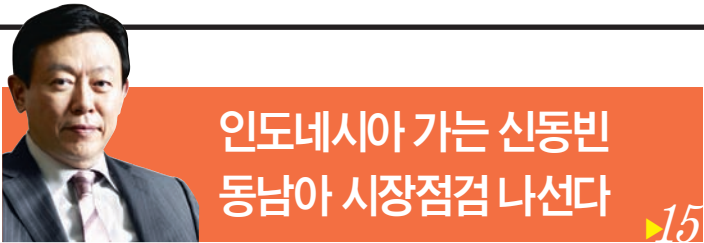
쌍용차는 2015년 콘셉트카 XAV 출시 이
후 “모노코크 타입의 소형 SUV를 앞세워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
다. 그동안 미국 진출을 위해 연비와 안전
기준 등을 맞춰왔고 진입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왔다. 모기업인 마힌드라와 시너지
를 위해 공동 플랫폼과 전기차 개발을 추
진해온 만큼 이번 공장 설립 계획이 쌍용
차에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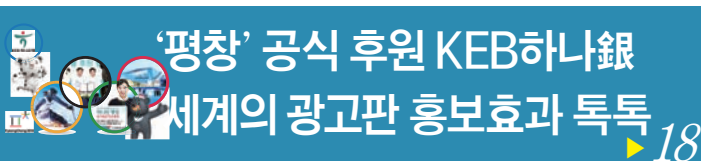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쌍용
차의 해외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진행 중”
이라며 “미국은 연비와 안전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시장 진
입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직 준비 단계로 가시화
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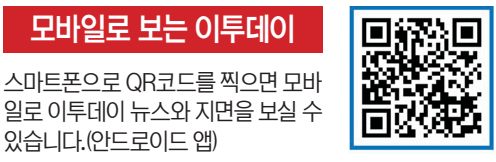
기아 ‘1세대 스포티지’
포드 ‘소형 SUV’ 프로젝트였다 ▶10



인도네시아 가는 신동빈
동남아 시장점검 나선다 ▶15



‘평창’ 공식 후원 KEB하나銀
세계의 광고판 홍보효과 특특 ▶18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알파벳 웨이모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이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공공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다. 출처 웨이모 트위터

성큼 다가온 자율車 시대 구글, 운전자 없이 달렸다

알파벳 웨이모, 지난달부터 공공도로 주행 테스트
“수개월내 차량공유 앱 통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진정한 자율주행차량의 시대가 왔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인 웨이모가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선보인 것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웨이모가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차량을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달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웨이모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19일부터 피닉스 메트로 지역에서 로봇 벤 시험을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사람들이 차량공유 앱을 통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모는 크라이슬러의 피서파카 미니밴에 자율주행 장비를 장착해 실제 도로 위를 달리게 했다. 웨이모 직원이 차량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앉았다. 직원은 정차 버튼만 누를 수 있다. 웨이모는 수개월 안에 승객들만 차에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웨이모는 구글의 프로젝트로 8년 전 시작됐으며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촉발했다. 이번 시험의 의미는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중 최초로 사람 운전자 없이 달리는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존 크래프치 웨이모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열린 한 기술 콘퍼런스 연설에서 “수개월 안에 우리의 ‘얼리 라이더(Early Rider)’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우버와 비슷한 형태의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공유와 자율주행은 10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파급적 혁신으로 꼽히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2030년에 미국에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 4분의 1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공유 차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율주행차량이 널리 채택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자율주행 관련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데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컴퓨터에 차량 통제권을 전부 맡길지도 의문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재회하는 ‘G2 强對强’…爭點은 ‘무역불균형’

트럼프 美 대통령, 오늘 중국으로

對北 문제 최우선 예상 깨고 韓·日서 통상 문제에 강한 집념
앞서 “中과 재협상…4조 달러 되찾겠다” 對中 무역적자 해결 의지
취임 11개월차 트럼프·9년차 시진핑 ‘두 스트롱맨’ 간 氣싸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 일정을 마치고 바로 중국을 방문한다.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미국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과 무역 회담이 잘 돼 미국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무역 문제를 강조한 것은 북한 문제를 우선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간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한 반도 긴장 사태를 두고 “결국은 잘 풀릴 것”이라고 희망차게 답했다. 또 그동안 군사적 옵션을 시사했던 강경한 태도와 달리 ‘협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상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통상 문제를 대놓고 지적하며 실리를 챙겼

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통상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통상 문제 해결에 강한 집념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간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순방에 나서기 전 트럼프는 트위터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경고를 날렸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지나치게 커서 숫자를 말하기도 어렵다”며 “무역 재협상을 해 4조 달러(약 4447조 원)를 되찾을 것”이라고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말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1인 지배 체제를 굳건히 했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방문하기 전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임기 1년도 안 된 트럼프 대통령과 9년째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을 지키는 시 주석 간 만남에서 G2 지도자들의 기싸움이 기대된다고 CNBC는 전했다.

4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양 정



4월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2박 3일 머문다. 미·중 간 화두인 무역 불균형 문제, 대북 문제 등을 놓고 두 스트롱맨이 어떤 기싸움을 벌일지 주목된다. 팜비치/AP연합뉴스

상이 만난 회동을 마친 직후 트럼프는 시리아 폭격을 단행했다. 마치 시 주석에 보란듯이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놓고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해 미·중 간 거리는 빠르게 멀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대중 무역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

결실이 맺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했다. 컨설팅업체 APCO윌드와이드의 제임스 맥그리더 회장은 “중국은 다양한 주제에 조절을 맞추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최근 투자 노트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나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제한하는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은 이번 만남에서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미국産 자동차, 왜 일본서 안 먹힐까?

左 핸들·육중한 차체…日도로에 부적합해 ‘외면’
벤츠 등 獨명차는 틈새시장 공략해 매출 증가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자동차 산업을 근거로 들어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일본산 차가 수백만 대 팔리지만 일본 내에서 미국 차 판매는 저조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 산업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작년에 트럭을 포함해 일본에서 팔린 미국 차는 1만9000대 이하였다. 이는 일본 전체에서 팔린 자동차의 0.3%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산 차의 무덤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이 타기에 미국 자동차가 말 그대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운전

석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 미국 차들은 일본 시장을 위해 이를 수고롭게 재설계하지 않는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두 번째 문제는 크기다. 덩치가 큰 미국 차는 일본의 좁은 도로에서 주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일본이 미국 차에 빗장을 걸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기업에 일본은 일종의 트라우마다. 1996년 일본에 상륙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 언론은 크라이슬러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을 죽일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대형차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크라이슬러가 고전했다.

미국 자동차는 전보다 더 안정적이며 연

료 효율성도 우수해지고 일부 소형 모델들은 일본의 도로망에 적합하다. 문제는 미국 차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뒤로 일본인들이 미국 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일본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합작 투자를 해 소형차를 생산하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매번 비참했다는 사실이다. 1996년 제너럴모터스(GM)는 도요타와 합작해 ‘카발리’를 생산했다. 일본에서 연간 2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째 판매량은 1만 1466대에 그쳤다. 그러자 GM은 2000년을 끝으로 도요타와의 합작 투자를 중단했다.

전통적으로 외제차를 좋아하는 야쿠자 수가 감소한 것도 미국산 차 판매 부진의 이유로 꼽힌다. 3월께 야쿠자 조직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이하로 줄었다. 일본 경찰청은 일본 전국 폭력단 구성원 수가 2만

명 이하로 줄어든 건 집계를 시작한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야쿠자는 한때 채권 회수 대행 등으로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수조 단위의 돈을 움직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암흑의 세계에서 손을 떠는 야쿠자들이 속출했다. 현재 일본 내 야쿠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올해 초보다 늘었으나 큰손 노릇을 하던 예전의 명성은 잃었다.

다만 모든 외산 차가 일본에서 부진한 건 아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독일 명차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야쿠자들의 지갑을 기꺼이 열게 하고 있다. 벤츠처럼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야쿠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한다면 일본에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천연가스는 어둠을 이깁니다.

자가열병합발전으로 이깁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천연가스가 함께 합니다.

자가열병합발전이란?

천연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대규모 발전소 투자 부담을 줄이고 건물단위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적화한 시스템입니다.

지원제도
문의처

서울 02-2657-1022 인천 032-453-6625 경기 031-400-7219
강원 033-760-6634 충청 042-229-3417 전북 063-850-3822
광주전남 062-950-1141 대구경북 053-850-1821 부산경남 055-330-7705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

“한미FTA, 美에 좋은 협상 아냐”... ‘불씨’ 남겨놓은 트럼프

핵잠수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해제 등
안보 강화·동맹 재확인 '성공적 평가'
FTA 견해차…개정협상 난항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평행선을 보이며 무역 문제 불씨가 남아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여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정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며 “오늘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북핵 평화적 해결에 공감대를 나

타내 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핵잠수함·최첨단 정찰기 등 최첨단 전력자산 구매와 방위비 분담이라는 포파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양국 정상 간 견해차를 분명히 나타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양 정상은 단독정상회담이나 확대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 경제관계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 아니다”고 밝혀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관철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고 부연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방한 이모저모

文대통령, 평택 미군기지 직접 마중 ‘깜짝예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포옹·독도새우… 日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택 미군기지에서 깜짝 환대한 이후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공식 환영식에 개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만족하며 계속해서 문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날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봤다.

◇트럼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모두 '파란색 넥타이'= 이날 한국땅을 밟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이었다. 평소 빨간 넥타이를 즐겨 매던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을 선택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파란색 바탕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적인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 그림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다.

◇문 대통령 평택 '깜짝 방문'…이례적 의전 =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정 장소인 '캠ป์ 험프리스'를 깜짝 방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한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가 아닌 미군기지에서 맞이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깜짝 예우에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美 대통령 환영식에 300명 의장대, 어린이 환영단… “베리베리 나이스” =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300여 명의 장병으로 구성된 의장대와 군악대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식을 꾸몄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후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차는 전통 의상대의 호위 속에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어린 이 환영단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고 채 아이들에게 다가가 “베리 베리 나이스”라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만찬매뉴 '독도새우'... '위안부 할머니'와 포옹
 히기도 =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만찬에는 만찬 매뉴에 '독도 새우'를 넣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참석하는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접근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완수(90)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포옹도 했다. 이에 일본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12월에 양국 합의의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비국際적인 해결을 한 것으로 양국이 확인했다"며 "역사적인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하니 기자 homey@

김하늬 기자 honey@

역대 美대통령 국회연설

1960년 아이젠하워 첫 연설... 클린턴까지 총 6번

정치적 이념→北核·通商문제... 시대 따라 연설 주제도 변화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한국 국회 연설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유익하고 호혜적이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을 보면 당시 시대상이나 방면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했다.

국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6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 국회 연설을 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체제와 6·25 직후 국가 재건의 시대상을 반영해 국회에서 공산주의의 배척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 방위공약의 성실한 이행, 전후 재건을 위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두 번째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6년 11월 2일

국회에서 6·25전쟁이 북침에 의한 발생한 것이라고
미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산주의 이념
확산 우려를 연설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과 공산
주의 위협이 확산하는 시기라 이 같은 이념적 때
시지를 던졌다.

이후 80년대로 넘어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 국제무역에서 거론되는 보호주의 압력 배제를 강조했다. 이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89년 2월 27일과 1992년 1월 6일 두 차례 국회에서 연설했다. 첫 번째 연설에서는 동반자로서의 한·미 동맹과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유지를 밝혔다. 두 번째 연설에서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AEAE) 사찰 허용 촉구와 주한미군 감축계획 보류, 군사적 행동 가능성 시사, 국제무역기구 통제 아래서의 자위무력의 강화 등을 얘기했다.

마지막 국회 연설자는 클린턴 대통령으로 1993년 7월10일 국회에서 신태평양공동체 구축,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새 대화체제 구축, 북한 IAEA 사찰 촉구와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신동민 기자 lawsdm@

http://tp.g-well.co.kr

ShinYoung

테크노폴리스의 미래가치에 지웰의 자부심을 더하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YBM NET

온라인 교육서비스 3년간 무상제공
전세대 계약 즉시 혜택제공

1

10년 연속 (2008~2017) / 한국산업의브랜드퍼워
온라인외국어학원부문 1위

- ①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 ② 공동구매 최대 200만원 혜택
- ③ 전국 청약 가능

11월 10일
OPEN (예정)

gowell

공원 프리미엄 소평 프리미엄 전망 프리미엄 교통 프리미엄

총336세대 84A-192세대, 84B-100세대, 84C-44세대

gowell '행복한 삶의 공간, 지웰' 부동산 전문가 (지웰)이란? 신영이 만드는 주거 브랜드입니다.

* 본 송보물의 CG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부설계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43) 233-2600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테크노폴리스 A1 BL ■ 대지면적: 19,143.90㎡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최고 25층, 5개동 총 336세대 ■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시행 신영 시공 우미건설

모텔하우스 주소: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24번지 (LG로 번)

한국노총 강연하는 노사정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사관계 최고 지도자과정 총동문회 조찬 토론회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진로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 중단 땀 30일 전 통지·환급’ 표준약관 제정 모바일게임 유료아이템 ‘먹튀’ 사라질까

♣.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 씨는 스마트폰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다 5만 원권 유료아이템을 결제했다. 그러나 게임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캐릭터와 유료아이템을 환불받을 길이 없어졌다. A 씨는 수차례 해당 모바일 게임업체에 전화했지만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게임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중단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한국인터넷데이터엔터테인먼트협회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는 ▲충족 ▲개인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정약

철회 ▲과오납금 환급 및 이용계약의 해지 ▲손배 배상 및 변칙 등 총 29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이 신설됐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도 규정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빈번한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의 경우는 수신거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일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회원에게는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신설된 환급규정의 경우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 가능하다. 이규하 기자 judi@

지난해 통계청 발표 공식 실업률 ‘3.7%’ 인력 수요만 고려한 LSFA로는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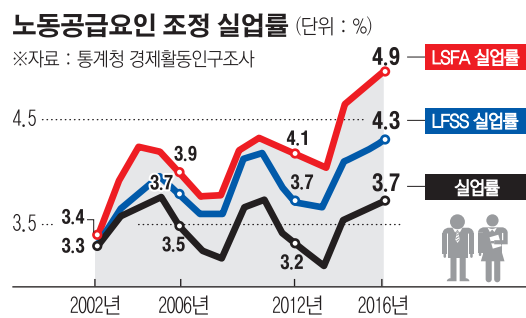
(노동공급조정 실업률)

가계의 노동공급 형태를 제외하고 기업 등의 인력수요만을 고려한 산출한 노동공급조정(LSFA) 실업률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LSFA 실업률은 경기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판단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공식 실업률 등 여타 노동시장 지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은행 산업고용팀 정성엽 과장 등이 공동 발표한 ‘노동수요·공급 지수로 본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공급요인을 조정한 실업률(LSFA 실업률)은 2016년 4.9%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3.7%)보다 1.2%포인트(p) 높은 것이다. 또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 비중을 조정한 LFSS 실업률(4.3%)보다도 0.6%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2002년 LSFA 실업률은 3.4%로 공식 실업률(3.3%)과 0.1%포인트 차에 그친 반면, 2010년 0.6%포인트 차에 이



어 2014년 1.1%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노동공급이 주로 실업인구 증가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실업인구로 집계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경향 강화도 공식 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성엽 한은 과장은 “경제 주체들의 노동공급 행위가 변한 것까지 고려할 경우 유휴노동력이 공식 실업률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韓 신용등급 10년간 28위→14위 OECD 35개국 중 상승폭 최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3%대 경제성장률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일본을 앞질렀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제신용평가사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Aa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 피치 ‘AA-’ 등이다. 무디스와 S&P는 상위 3번째, 피치는 4번째 등급이다.

10년 전(2007년 10월 말) 무디스는 ‘A2’, S&P는 ‘A’, 피치는 ‘A+’ 등급이었다. 현재보다 각각 3단계, 3단계, 1단계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와 S&P가 10년간 등급을 3단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피치의 경우 2단계씩 올린 이스라엘과 터키만 한국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3대 신용평가사 모두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4위로 올라섰다. 10년 전 무디스는 28위, S&P와 피치는 24위였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3대 신용평가사 모두 2단계 높다. 중국과 비교하면 무디스와 S&P는 2단계, 피치는 1단계 우위다. 대만의 경우 무디스와 S&P는 1단계 높고, 피치는 동일한 등급이다.

일본은 10년 전 무디스 ‘Aaa’, S&P와 피치는 ‘AA-’로 우리나라보다 5단계 높았던 바 있다. 지금은 무디스 ‘A1’(4단계), S&P ‘A+’(2단계), 피치 ‘A’(3단계)로 떨어지면서 한국에 역전됐다.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2~3%대 건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운영은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ICIJ 조세회피처 문서에서도 드러난 MB 자원외교 혈세 낭비

가스공사, 현대상사서 산 예멘LNG 지분 당시 가격보다 5배에…지금은 생산 중단

당시 자원 공기업들, 정부서 해외사업 목표치 할당 ‘묻지마 투자’

석유공 이라크 쿠르드 사업 매장량 ‘거짓 홍보’ 5.8억 달러 손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 부실당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현대상사와 거래한 내역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액화천연가스(LNG) 지분 5.88%를 페이퍼 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2.88%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현대상사의 보유지분을 10개월 전 거래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샀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당시 가스공사가 예멘 LNG 지분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연간 1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2015년 4월 예멘 내전 악화로 LNG 생산이 중단되면서 배당은 2014년 2회에 그쳤다. 현재는 생산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자원 공기업들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해외 사업규모의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984년 이후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35조8000억 원) 중 77.6%인 27조8000억 원이 MB정부 책임 액화천연가스(LNG) 지분 5.88%를 페이퍼 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2.88%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현대상사의 보유지분을 10개월 전 거래 가격보다 5배 이상

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 원에서 올해 53조 원으로 약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제1호 자원외교 사업으로 당시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탐사에 실패했고, 1개 광구만을 생산 중이나 매장량은 4700만 배럴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5억8300만 달러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향후 20년간 4억60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IS 리스크로 사업이 중단돼 총투자비 26억 달러는 전액 손실처리됐다.

수입 에너지 비중이 95%가 넘는 정도로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원 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국의 반출규제 등으로 편지에 실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석유·가스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자원 확보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혈세낭비가 벌어져도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규명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www.shinhaninvest.com
1588-0365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금융광장

연금자산

인증센터

추천상품

나의 자산 현황

간편이체

주요지수

관심종목

쉬운 자산관리 시대가 활짝!

[신한아이알파]

누구에게나 쉬운 원스톱 자산관리앱
복잡한 자산관리를 단 하나의 앱으로!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의 새 시대를 연다

신한 iα
신한금융그룹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7-04343호(2017.09.30 ~ 2018.09.30)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17-8385호(2017.09.30 ~ 2018.09.30)

프로들의 자산관리 | 신한금융투자

‘제빵사 5300명 직접고용’ 잠정정지 결정 파리바게뜨 시간 벌었다

법원 “일단 현 상태 유지하라”
29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유예
22일 심문기일…1차 판단 주목

제빵기사 5300여 명을 9일부터 직접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가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에 앞서 집행 기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재판부 결정은 법원 판단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기 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문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적어도 29일 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안소송 전 집행정지 사건은 선고

기일이 별도로 잡히지 않는다.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과가 전달된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과태료 1000만 원씩 총 537억 원이 부과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주는 제빵기사 1인당 도급비는 330만~350만 원인 데 반해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은 평균 월 24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은 협력업체가 챙기는 셈이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집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날 31일 소송을 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마지막 사법시험’ 55명 합격
최연소 20세 이승우씨…女 25명

올해 말 폐지되는 ‘마지막’ 사법시험에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55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의 이승우 씨였다. 이 씨는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사법시험 4회를 남기고 고시 공부를 시작해 최연소 합격자의 기록을 썼다.

최고령 합격자는 박종현(45·남) 씨로 이 씨와 스물 다섯살 차이가 났다. 최고 득점자는 2차시험 총점 457.22점, 평균 60.96점을 얻은 이해경(37) 씨였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높아져 올해 33.36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25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5%였다. 지난해 36.7%에 이어 더 늘었다.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존재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박미선 기자 only@

校費로 스크린골프·경조사비
수도권 전문대 불법운용 적발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만의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10월 출범한 뒤 첫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국고 사업비 가운데 3000만 원은 외유성 관광 경비로 썼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 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 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 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배우자의 월세·고시원 費用도 세액공제

올 연말정산 節稅 노하우

수시합격 자녀 등록금 냈다면
내년 소득분에 반영하는게 유리
부양가족 기부금도 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에 수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서비스 개시 ※자료 : 국세청

1단계	2단계	3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절세 팁 및 3개월 추세 확인
1~9월 사용 정보 제공, 10~12월 사용 예상액 입력	1단계 예상액 반영, 그 외 항목 올해 예상액 수정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액 등)	항목별 맞춤형 절세 도움말, 세액 증감원인 분석을 위한 3년간 신고내용

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이 비용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난 내년 소득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교육비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3배나 높기 때문이다.

또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일례로 10살, 6살, 1살짜리 등 세 명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세액공제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70만 원 등

트럼프 贊·反… 둘로 갈린 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7일 서울 서소문로 일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한편 청운호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O트럼프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고이관 기자 photoeran@



광역시·道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

폭력·사기 등 생활범죄 예방·단속… 정부, 시행 권고안 발표

내년 시행안 완성 2019년 시범 운영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췌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

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범 집합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학교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버운 사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권도 보유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전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본부장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뒀다. 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인물뿐 아니라 외부 인사 가운데서도 뽑을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용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의 특정 세력과 유착을 피하고자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 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해 지자체장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개혁위는 지방분권에 관한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중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완성되고, 2019년 시범 시행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밥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맛있는 음식 뿐이 아닙니다

계란반찬 한 개라도 나눠먹는
나눔 한 입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차린
협동 한 접시

부모님이 먼저 드시길 기다리는
존중 한 수저

동생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배려 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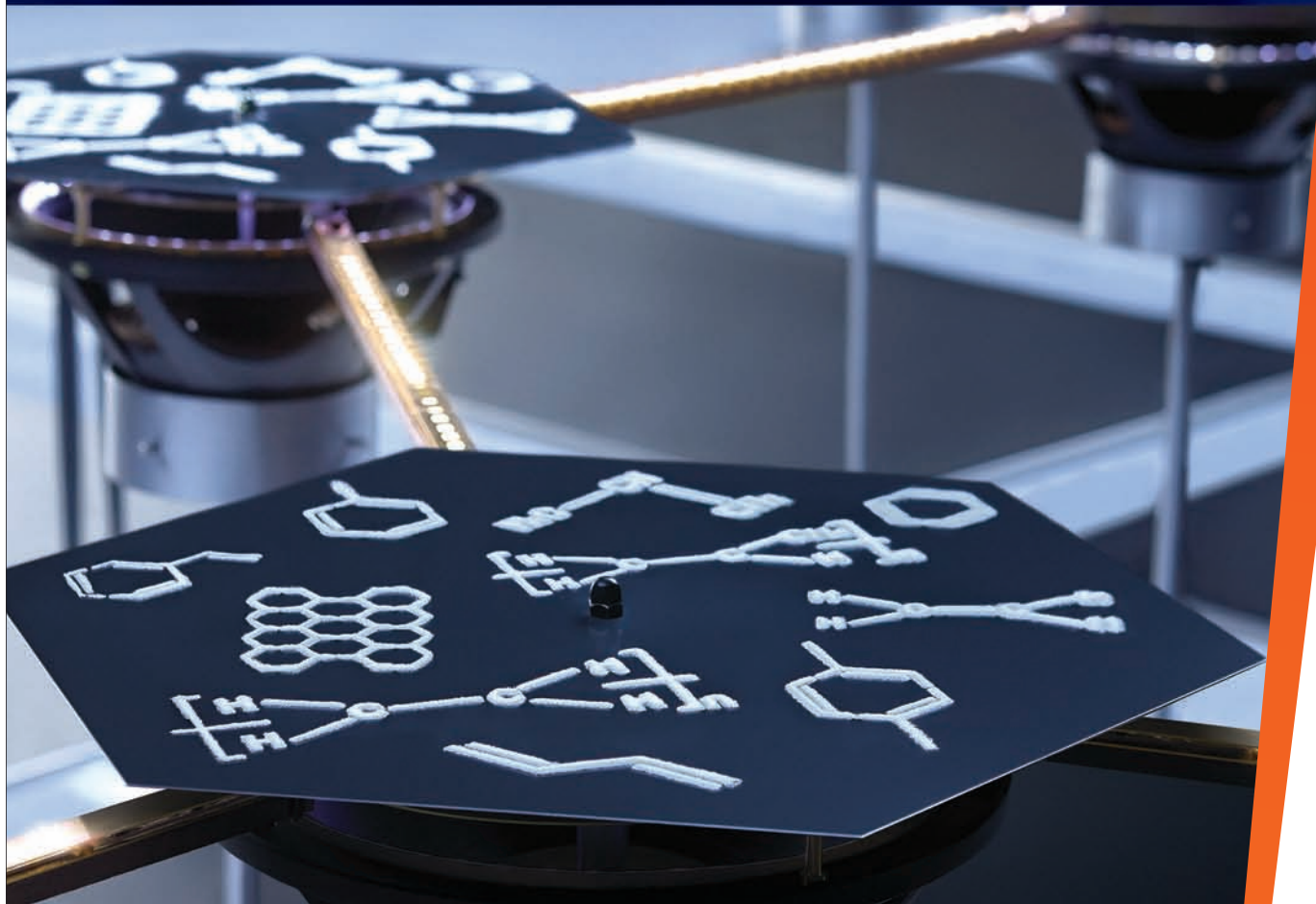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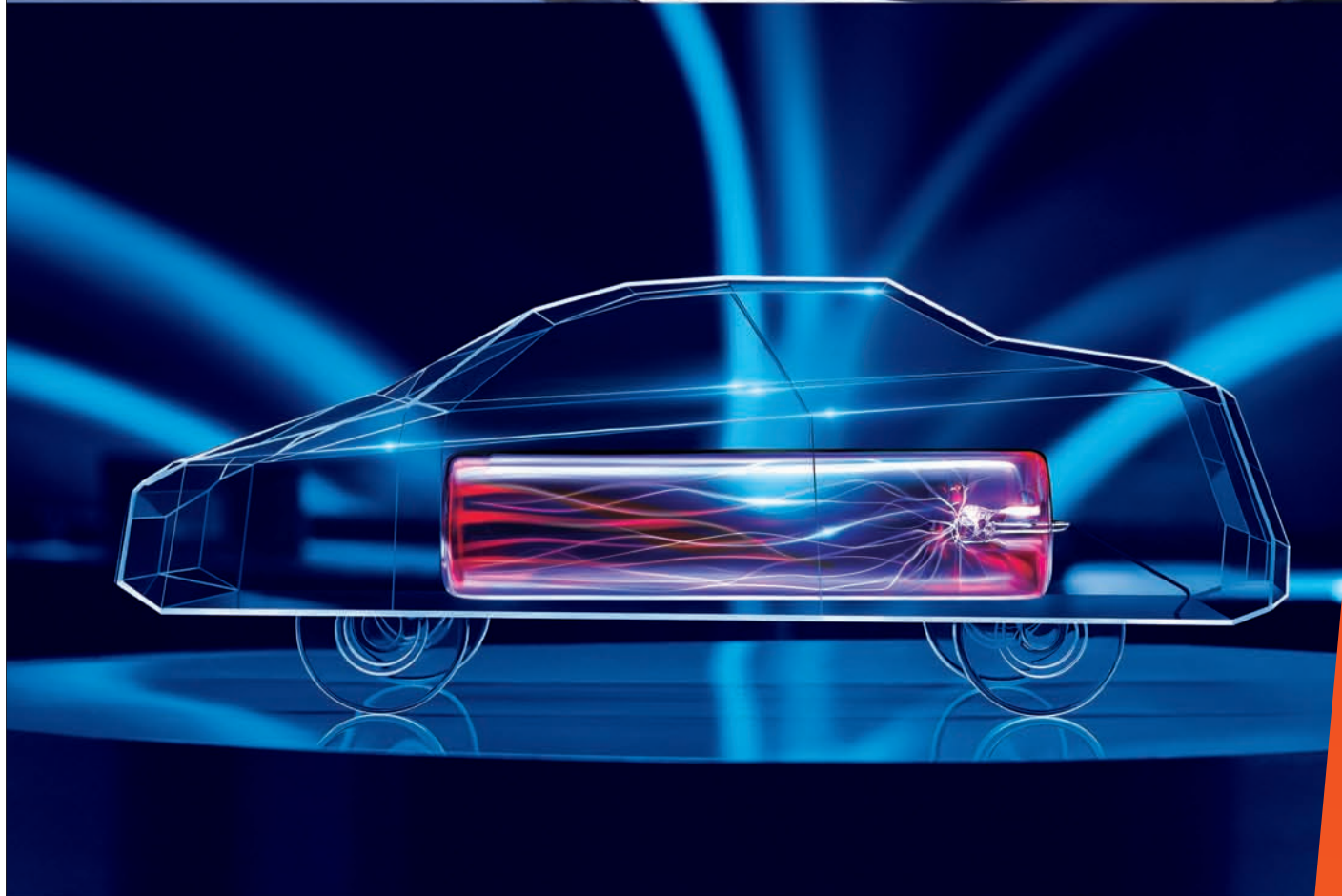
인성 밥상

함께하는 밥상에서 아이의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인성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관, 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에너지영토. 경계를 넘다

87개국 수출, 그 이상을 향해

전기차배터리. 불가능을 넘다

1회 충전 주행거리 700km를 향해

미래화학소재. 상식을 넘다

강철보다 5배 가벼운 신소재를 향해

고성능 윤활유. 한계를 넘다

엔진수명 27% 연장, 그 이상을 향해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하이투자證·운용·선물’ 일괄 인수하는 DGB금융

社名에 DGB하이투자증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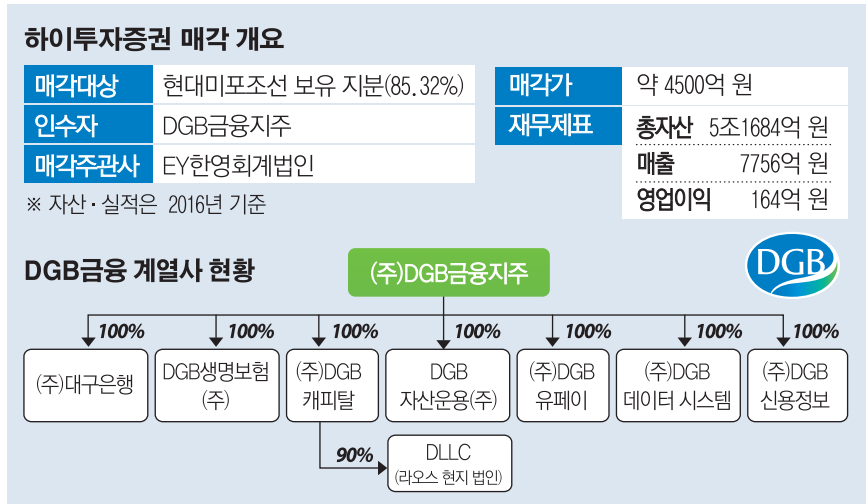
브랜드명까지 총 매각價 4500억
오늘 이사회에 주식매매계약 상정
박 회장 비자금 의혹 수사 진행에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 승인 관련

매각에 난항을 겪던 하이투자증권이 자회사와 브랜드명까지 패키지로 DGB금융지주에 팔리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자구계획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DGB금융지주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최종 매각가는 약 450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에는 하이투자증권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과 현대선물은 물론 하이투자증권 브랜드 사용권까지 포함됐다. 하이투자증권 브랜드 사용권은 현대미포조선이나 지배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아닌 하이투자증권이 자체 보유하고 있다. 이에 DGB금융지주는 해당 브랜드 가치까지 인수 대금에 포함하면서 향후 사명 변경 시 ‘DGB하이투자증권’ 또는 ‘하이투자증권’으로 기존 브랜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DGB금융 계열사는 DGB생명보험, DGB자산운용, DGB캐피탈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 왔다.

당초 7000억 원이 넘었던 하이투자증권 장부가액이 현대미포조선의 손상차손 인식으로 4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DGB금융지주가 하이자산운용



과 현대선물을 재매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초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실사를 마무리한 8월 말 내부적으로 인수 결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 자회사까지 인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최종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LS자산운용(현 DGB자산운용)을 인수해 이미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선물의 장부가액은 306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순이익은 7900만 원에 불과하다.

인수 작업은 이르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이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관련이 될 전망이다. DGB금융지주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지평 등 대형 로펌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해 세부적인 매각조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주가 아닌 대구은행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자구계획 이행에 속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8년까지 3조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현대차와 KCC, 포스코 등 주식과 유휴 부동산 매각, 현대호텔, 현대로보틱스 등 비핵심 사업 정리로 목표 금액을 채웠다. 그러나 지난해 예측한 선박 발주 추세보다 수주 절벽이 더욱 심해지면서 추가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약 4500억 원이 유입됐지만 추가 자회사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독일 야케법인, 중국 타이안법인 등 비핵심 사업 정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운 기자 gamja@
김보름 기자 fullmoon@

‘채용비리’ 의혹 우리은행

“차기 銀行長 자격, 외부人事로 확대”

한일·상업銀 계파 갈등 봉합에 “중립적 인물 등용” 기류 확산
임추위 구성前 이사회서 논의… ‘낙하산’ 논란 우려는 여전

차기 우리은행장 지원자격이 ‘외부 인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부 출신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는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 한 관계자는 8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차기 행장 선출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이사회에 일지된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인적쇄신의 폭을 넓게 생각한다면, 외부인사 중용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에 앞서, 이사회 내부에서 은행장 자격요건을 확대하자는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는 이어 “아직 이 문제를 놓고 이 사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의견을 개진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내부에서 은행장 자격요건 확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IMM PE,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화생명) 추천 사외이사들은 차기 행장 조건으로 우리은행 및 계열사 5년 내 전·현직 부행장급 이상 경력을 앞세워 외부인사 진임을 차선했다. 민영화 이후 첫 행장 인선에서는 경영인정을 도모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특혜채용 관련 투사로 한일과 상업 간 골 깊은 갈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중립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인사가 행장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인사개입이 가시화되면 원 있는 인사에 줄을 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과거 KB금융처럼 경영진의 장기간 공백 상태를 틈타 정부가 나서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는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예금보험공사는 임추위 참여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관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보는 1월 우리은행 행장 선출 때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임추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내부 갈등을 앓고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임추위 진임을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이사회 관계자 “예보가 관치 논란에 한발 뒤로 물러난 상황이지만, 사안의 핵심은 우리은행 최대 주주는 예보로 이사회 내부에서 의결권 비중이 가장 높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人事·組織 확 뜯어고친다

우리은행 ‘혁신TF’ 가동
계파대립 등 내홍 재정비

검찰 압수수색과 행장 사퇴로 조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은행이 조직 안정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내부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과 계파대립 등 조직문화를 확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영배 본부장(퇴직연금부)을 책임자로 한 혁신 TF팀을 꾸리고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혁신 TF팀은 다음달 29일까지 2달 동안 운영된다. TF팀은 고 본부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고 본부장은 한일은행 출신이다.

TF팀은 부장, 부부장, 차장, 과장 등 전 직위가 망라돼 전 사적 차원의

혁신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본부장 1명, 부장 1명, 부부장 2명, 차장 4명, 과장 3명, 대리 2명, 계장 1명 등이 참여했다. TF팀은 인사시스템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6일 손태승 부문장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인사시스템과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향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영업현장 직원들과 소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 채용비리와 조직 내부계파 갈등으로 우리은행이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재정비하고 뜯어고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1999년 1월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어느 한쪽의 흡수합병이 아닌, 대등 합병함에 따라 양 계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계파

대립 해소를 명분으로 외부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이런 내부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오히려 내부 갈등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설립한 지 100년 이상된 은행인데, 계파 대립 등 문제를 정화할 능력이 없겠다”며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은행을 잘 모르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은행이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08년 이종휘 행장 체제(2008년 6월~2011년 3월)부터 내부 출신이 은행장이 됐다. 이전 이덕훈 행장(2001~2004년), 황영기 회장 겸 행장(2004~2007년), 박해춘(2007~2008년) 행장은 모두 외부 출신이다.

한편 금융노조도 7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우리은행장은 반드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내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産銀-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갈등’ 재점화하나

박 회장 무상 양도 관련 口頭 약속
문서화 안돼… 향후 사업 진행 차질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8일 채권단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우선매수권 포기와 관련 문서를, 금호타이어는 상표권 무상 양도와 관련한 문서를 10월 26일에 금호산업에 각각 보

냈다.

산은과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 측에 10월 3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으나 금호산업은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산은은 이달 2일에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구하는 문서를 다시 보내 6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금호산업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산은은 박 회장이 언론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선매수권 포기 확인서를 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또 우선매수권 부여 여부는 채권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 여부는 이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박 회장(금호산업)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이 문서로써 상표권 사용 허용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상표권 포기 합의는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중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

      graph TD
        A[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 B[자동수집]
        B --> C[Cloud Center]
        C --> D[자동분개]
        D --> E[자동 회계처리 엔진]
        E --> F[자동입력]
        F --> G[회계장부]
        F --> H[자금관리]
        F --> I[세무신고]
        G --> J[자동검증]
        H --> J
        I --> J
        J --> K[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K --> L[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산업동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아이폰X’으로 번진 OLED ‘번인’ 논란… 삼성에 부메랑 되나

〈burn-in: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화면 잔상이 남는 현상〉

삼성, LG OLED TV 겨냥해 동영상 올리며 맹공
애플 “아이폰X에서도 번인 나타날 수 있다” 언급
아이폰 탑재 OLED,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

삼성전자가 불붙인 OLED ‘번인(burn-in)’ 논란에 애플 ‘아이폰X’이 가세했다. 애플이 아이폰X에서도 번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

면 잔상(영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인데, OLED 디스플레이의 단점으로 지목된다.

애플은 삼성전자는 LG전자 OLED TV를 겨냥해 번인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는 삼성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이폰X에 탑재된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만들었다. 삼성전자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에도 OLED가 탑재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디스플레이 지원 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X를 장시간 사용할 시 디스플레이에 시각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번인 현상 가능성을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폰X에 적용된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업계에서 OLED 번인 현상이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OLED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색상이나 색조가 조금씩 다

르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는 아이폰X 역시 번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OLED TV의 번인 현상에 대해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달 뉴스룸에 올린 ‘알아두면 쓸모 있는 TV 상식, 번인 현상 왜 생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음향·영상 전문 웹 사이트인 ‘AVS포럼’에서 벌어진 번인 현상 토론과 미국 IT 매체 알팅스의 실험 결과를 거론하며 OLED TV의 약점으로 번인 현상을 지적했다. 또 유튜브에 ‘QLED

대 OLED, 12시간 화면 잔상 테스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며 OLED TV의 번인 현상을 맹공했다.

이는 자사 QLED TV와 경쟁을 펼치는 OLED TV의 단점을 부각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OLED 번인 현상 지적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중소형 OLED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역시 스마트폰에 OLED를 탑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OLED 번인 현상을 널리 알리면서, 자사 QLED TV 판매량 증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OLED 번인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스마트폰에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평균 사용 기간이 2~3년인 스마트폰은 OLED를 사용하더라도 번인 현상이 눈에 띄지 않지만, 내구성이 중요한 TV나 게임 모니터는 OLED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쌍용차, 해외진출 속도

“G2서 팔아야…” 美 진출 움직임 부진한 유럽·중동 공략 시동 전다

‘G4렉스턴’ 가솔린 모델 유럽 출격
수출효과 ‘티볼리’ 중동 론칭 재점비

최근 쌍용자동차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력시장인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부진이 꼽힌다. 쌍용차의 미국과 중국 진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수출 활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G2’에서 판매를 시작해야 전 세계적인 수출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판매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미국 진출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티볼리에 대한 과도한 편중 현상도 부담이다. 티볼리는 올해 10월까지 수출 판매로만 1만3659대가 팔렸다. 이는 이 기간 쌍용차의 전체 수출 물량(3만134대)의 45.3%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G4렉스턴,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C 등의 성공 여부가 쌍용차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보

고 있다.

쌍용차는 어깨가 무거운 티볼리의 짐을 덜기 위해 G4렉스턴 가솔린 모델을 유럽 시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 불어닥친 디젤게이트의 여파로 엔진 선호 추세가 가솔린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G4렉스턴 가솔린 모델을 출시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G4렉스턴 가솔린 모델의 유럽 진출 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른 시일 내에 유럽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중동 시장에서의 부진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신규대리점을 열어 제품 론칭 행사를 진행하며 판매네트워크를 재정비했다. 이번 행사에서 티볼리, 티볼리 에어(수출형 XLV), 뉴 스타일 코란도 C(수출형 코란도) 등 주력 모델을 선보여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올 9월 티볼리를 앞세워 내수에서 첫 3위를 기록하면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수출 실적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은 판매 실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쌍용차의

3분기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지만, 수출 부문은 28% 감소했다. 쌍용차의 전체 실적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2.6%에 달한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삼성, 한화종합화학 매각… 1조 실탄 장악

본격 M&A·투자 나설 듯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1조 원가량의 현금화로 삼성이 인수합병(M&A)이나 사업확장·투자를 위한 실탄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7일 각각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0.05%(약 852만 주)와 4.05%(약 172만 주)를 팔기로 하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가진 총 24.1%의 지분은 2015년 삼성그룹이 화학·방산 관련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 ‘빅딜’ 당시 남겨 놓은 잔여 지분이다.

삼성 계열사였던 삼성종합화학은 한화에 매각되면서 한화종합화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남은 지분은 한화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이에 한화는 2021년까지 한화종합화학을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즉, 삼성이 보유한 잔여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2022년까지 한화종합화학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유지분의 일정 금액을 한화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받았다.

한편,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지분 매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에 대한 신(新)자금 여력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13%에 대해 9조 원에 가까운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종합화학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이 현금화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화종합화학은 2015년 말 2656억 원이었던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5753억 원으로 121% 증가했다. 한화종합화학의 올해 실적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삼성물산 보유지분 총가치는 1조~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中 중저가 제품과 차별화”… 철강3사 ‘브랜드 전쟁’ 본격화

포스코 ‘기가스틸’·현대제철 ‘에이치코어’·동국제강 ‘렉스틸’
공급과잉에 어려움…주력제품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나서

국내 철강3사가 잇따라 주력 제품에 브랜드를 입히면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중저가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해 매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에서다.

8일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고로 3사가 모두 주력 제품 브랜드화를 완료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아닌 철강제에 이름을 붙이는 마케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공급과잉’ 문제가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초까지 중국산 철강재 과다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자국 철강업계에 대한 감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상황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중국 철강업계가 구조조정을 마친 뒤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기술력과 함께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다. 포스코의 대표 브랜드는 ‘기가스틸(Giga steel)’이다. 기가스틸은 1㎥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

세대 강판이다. 인장강도가 1GPa(기가파스칼) 이상인 초고강도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가스틸은 알루미늄 등 대체소재에 비해 경량성, 경량화는 물론 높은 강도로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다. 알루미늄 부품보다 더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제철은 내진용 철강재 브랜드인 ‘에이치코어(H CORE)’를 론칭했다. 내진용 철강재인 에이치코어는 지진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다. 현대제철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내진용 H형강을 개발한 뒤 내진기능을 강화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가 강화되는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대비로 풀이

된다.

동국제강은 ‘렉스틸(Luxteel)’을 내세우고 있다. 렉스틸은 고급(luxury) 건축 내외장재다. 2013년에는 가전 제품용 컬러강판에 ‘애플스틸’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기도 했다. 애플스틸은 가전제품을 뜻하는 ‘어플라이언스(Appliance)’와 적용을 의미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2015년에는 ‘디코일(DKOIL)’이라는 코일철근도 출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품질 물량이 밀려들면서 시장 가격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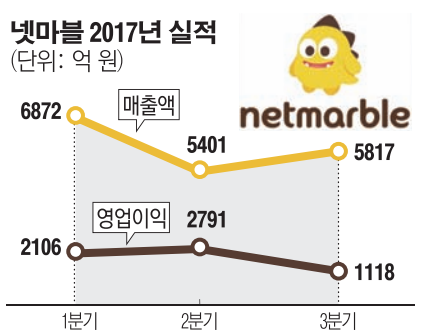
이광호 기자 khlee@

亞 사로잡은 ‘리니지2’… 넷마블게임즈 연매출 2조 눈앞

3분기 누적매출 1조8090억 달해
‘리니지2 레볼루션’ 日 등 매출 1위
컴투스도 해외 매출 1101억 성과

넷마블게임즈가 해외 시장의 흥행에 힘입어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올 3분기까지 누적매출액 1조809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매출 1조5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넷마블은 올해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11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17억 원으로 62% 늘었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의 매출은 1분기 6872억 원, 2분기 5401억 원에 이어 이



날 성과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연매출을 뛰어넘었다.

특히 3분기 해외 매출은 410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해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월과 8월 각각 아시아 11개국과 일본 등에 출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국내에 먼저 출시된 리니지2 레볼루션은 올 하반기 본격적

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며 일본 등에서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3분기 국내 매출은 932억 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매출은 99억 원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701억 원을 달성했다. 일본의 경우 8월 말에 출시돼 약 한 달 만에 거둔 성과로 4분기에는 매출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북미 자회사 ‘카밤’의 ‘마블 울스타 배틀’이 7월 미국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도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은 세계 게임시장 2위 규모인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에서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15일 레볼루션을 북미, 유럽 등 54개국에 출시하며 국내에는 모바일 MMORPG ‘테라M’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더 높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인 컴투스도 올 3분기에 해외매출 1101억 원을 달성해 8분기 연속 1000억 원을 넘는 기록을 이어갔다.

컴투스는 3분기 매출액 1257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특히 매출액은 전체의 88%인 1101억 원을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북미와 유럽 시장이 해외 매출의 61%를 차지하며 높은 성과를 올렸다.

컴투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IP(지식재산권)의 확장과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머너즈워’는 이달 길드 점령전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해 콘텐츠를 강화한다. 특히 25일 미국 LA에서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게임 축제 문화를 개척할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atio@

롯데정밀화학, 6년 만에 태양광 소재사업 손 떼다

롯데정밀화학이 6년 만에 태양광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다. 미국 3대 태양광업체와 함께 폴리실리콘 생산회사를 설립했지만, 태양광 업황 악화로 인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결국 파산까지 이른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MP는 6일 울산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SMP는 롯데정밀화학이 2011년 미국 선에디슨과 설립한 50대 50 합자회사로 폴리실리콘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롯데정밀화학이 2014년 지분 35%를 선

에디슨에 넘기면서 지분율을 15%까지 낮췄다. 현재 SMP의 최대주주는 선에디슨의 100% 자회사인 SPSS다.

SMP는 선에디슨이 오랜 태양광 시장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유동성 위기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최대주주인 SPSS가 판매한 폴리실리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작년 한 해 손실만 3404억 원이다. 결국 SMP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 1년 5

개월여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롯데정밀화학 측은 “SMP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인 이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불가피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밀화학은 SMP에 투자한 자금은 물론 매출채권·미수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롯데정밀화학이 SMP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343억 원, 미수금은 73억 원으로, 지분 15%에 대한 출자금 762억 원까지 총 11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잃게 된 것

폴리실리콘 생산회사 SMP 파산
작년 3404억 손실… 매각도 실패

이다. 손실금에 대해서 지난해 회계상 처리를 마쳐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양광 사업의 실패라는 오점을 찍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SMP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평가손실이 예상되며, 손실 규모는 회계법인과 신용평가법인의 공정 가치 평가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지난해 손실을 모두 반영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소소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8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 DB생명 DB캐피탈
-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손해보험	 동부증권의 새 이름 DB금융투자	 동부저축은행의 새 이름 DB저축은행
 동부생명의 새 이름 DB생명	 동부자산운용의 새 이름 DB자산운용	 동부캐피탈의 새 이름 DB캐피탈

2018년 流通업계 키워드는 **SHIFT**

오프라인 채널 부진 온라인 고속 성장
첨단기술 접목 미래형 매장으로 大轉換

2018년 유동업계 키워드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SHIFT'가 예고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통 오프라인 채널의 부진, 온라인 채널의 (고)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매장으로 진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위 그레이스홀에서 '2018 유통 대
전망 세미나'를 열어 내년도 유통
패러다임이 '대전환(SHIFT)'할 것
이라는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의
전망을 소개했다.

SHIFT는 트렌드 변화를 대표
하는 △Small Format △Hybrid
△Intelligent Commerce △
Fun&Experience △Technology 등
따 조합한 것이다.

Small Format	1~2인 가구 맞춤형 소형포맷
Hybrid	다양한 소비자 요구 융합
Intelligent Commerce	자능형 통합 유통
Fun & Experience	재미와 경험 제공
Technology	첨단기술로 무장

앞글자를 내년 유통업체는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심화 등으로 대형 포맷의 성장

이 정체되는 대신 근린형 소형 포맷의 고성장이 예상됐다. 또 유통시장이 성숙화하면서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융합 포맷 증가가 점쳐졌다.

기존 직판 의존형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과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연계 등 지능형 통합 유통으로 진화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오프라인 집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상품 진열 중심의 아날로그 매장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무인결제(SCO) 등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매장으로 진화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유통업체별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통 유통

통채널은 저성장 혹은 역진장을 기록하는 데 반해 복합물과 온라인물은 소비 트렌드 변화로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AT커니 이철 상무는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 는 판매 활동에 투하되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다 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비용을 과감하게 걸어내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앤드퍼튼니 송지혜 파트너는 “디지털 전환 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 구조의 재편 속도 가 빨라지며 기업 인수·합병이 성장의 핵심 해법 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서는 O2O 파트너십 및 자원 투자 등 대안적 접근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봉호 기자 spdran@



“就準生 파이팅!” 면접 특급 도우미 났다

〈취업준비생〉

하반기 공제 면접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동업체들이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학벌·스펙 등 조건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 변화의 흐름에 맞춰 면접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평균 19만 5000원(지난해 인크루트 조사)에 달하는 면접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11월 하반

11번가, 대학 방문 '청년일일코디' 진행
면접 코치·메이크업·사진촬영 서비스
KT&G, 면접의상 무료 대여 프로그램
이랜드리테일·롯데백, 正裝 할인 행사

기 공채 면접 시즌을 맞아 면접 의상 무료 대여, 전문가 무료 컨설팅 등 취준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는 취업 면접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접 스타일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일일코디'를 진행하고 있다. 메이크업·헤어스타일링, 사진 촬영, 면접을 구두 증명,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 등을 통해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돕는다.

지난달 26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130명의 학생이 참석해 면접 스타일링을 받았다. 사전 신청을 받아 선발된 110명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면접 구두가 증정됐다. 이달 중에는 서강대(8일), 광운대(16일), 국민대(22일) 등에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현 SK플래닛 마케팅전략실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취업안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장기 불황, 취업난 속에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응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는 매년 의상 무료 대여 프로그램 '싱싱옷장'을 통해 취준생들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싱싱옷장'은 대학교 내에 옷장과 피팅룸을 갖추고 면접용 의류 일체를 재학생들에게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곳을 추가해 현재 충북대와 충남대, 강원대, 경기대, 부경대 등 수도권에 비해 취업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 총 12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마다 총 60벌(남성용 30벌, 여성용 30벌)의 정장이 마련돼 있으며, 면접용 의류는 코오롱FnC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4136명, 월평균 345명에 달하는 이용 실적을 기록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과 롯데백화점 등은 SAP 브랜드를 통해 가성비 높은 ‘착한 정장’을 선보이며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보탰다. 이랜드는 스파오 브랜드를 통해 상의 9만 원, 하의 3만9900원의 슈트를 내놨다. 롯데백화점은 남성 정장 자체 브랜드(PB) 맨인슈트에서 한 벌에 9만8000원짜리 남성 정장을 선보였다.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울과 폴리에스터의 혼합 소재로 제작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유통사가 직접 제조사와
협업해 중간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 정
책이 가능했으며, 이 같은 정책을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저렴한 가격 이상의 성
능을 가진 다양한 정장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

심한 日較差·미세먼지 공습... 피부를 지켜라

심한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등장하면서 환절기 피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각질이 생기기 쉽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푸석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약해진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번에 망가지는 건 볼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환절기에 예민해진 피부를 관리하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비디비치’
‘세럼·마스크·립스틱’ 피부 보습 3총사



‘하이드라 인텐스 라비아탈라이징 세럼[샤진]’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속 극한의 건조함 속에서도 살아남는 플랑크톤 추출물로 만들어 피부에 강력 한 수분을 공급해 준다. 플랑크톤 추출물은 항산화 와 디톡스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이드라 인텐스 미네랄 테라피 펄 마스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인류 미래 식량으로 선정한 슈퍼푸드 ‘스피루리나’를 주 원료로 사용해 70여 종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설휘수 ‘자음생 마스크’ 더블 랩핑 시트에 안티에이징 성분 담아

설휘수의 ‘자음생 마스크(사진)’는 혁신적 더블 랩핑 시트에 자음생크림의 핵심 성분을 풍부하게



실큰 '페이스에프엑스'
진피층 콜라겐 재생 피부 탄력 도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을 뛰어넘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Health from Nature – 동성제약

자면서 찾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동성제약은 양귀비, 정로한, 세븐에이트 등 고령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60년 동안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을 이용한 광학치료마약 연구를 미래성장동력으로 100년을 꿈꿔왔습니다. 동성제약은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入住물량 넘치는 경기도...집값까지?

올 18.7만·내년 21.5만...최근 5년 평균보다 40% 많아
화성·성남·오산 등 전세비율 줄고 전세가 하락 현실화
문제는 앞으로...주택 공급과잉 집값 끌어내릴까 우려

내년까지 경기도 일대 입주 물량이 넘쳐나면서 곳곳에서 전세가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도 당달아 내려가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IBK경제연구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올해 18만7000가구, 내년 21만5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11만5000가구보다 40%가량 많은 수준이다.

향후 입주 물량을 가능할 수 있는 인허가 건수 역시 2015~2016년 평균이 37만5000가구로 과거 2005~2014년 평균(23만5000가구)보다 37.5% 많았다. 통상 인허가 건수는 2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소화를 못 한 물량은 그 다음 해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1~9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45만4957가구로 5년 평균치보다 10.1% 많았다.

이 같은 공급 과잉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2018 국내 주요산업 전망'에서 강력한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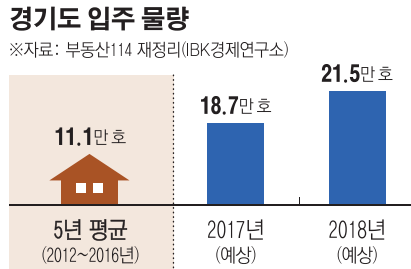
투기억제대책과 더불어 주택 공급 과잉이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위축의 징후는 전세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가는 3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광주(-0.18%), 시흥(-0.18%), 양주(-0.13%), 화성(-0.09%), 평택(-0.08%) 등이 하락했다.

화성은 올 들어 10월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1만7653가구로 경기도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 화성 인구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약 5%인 것과 비교하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성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비율)이 3월 79.2%에서 10월 말 75.3%까지 하락했다.

화성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탄의 입주 물량이 많아 화성의 전세 수요자가 대거 빠져나갔다"며 "전세 가격은 작년보다 기존 아파트가 1000만 원, 신축 아파트는 2000만 원 정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12월부터 내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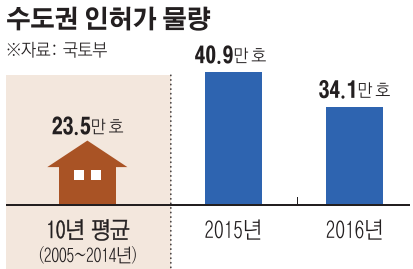


까지 화성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7937가구로 올 10월까지의 입주량보다 많다. 화성처럼 입주량이 많이 몰린 경기도 남부권의 성남과 오산 역시 최근 한 달 만에 전세 비율이 0.05%포인트 하락해 79.9%를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세종이나 동탄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며 전세 가격이 조정된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는 올해 물량도 많은데 내년엔 더 많아지므로 화성, 용인, 김포, 시흥 등은 전세 가격이 계속 조정되는 흐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 과잉이 전세가 하락에서 더 나아가 집값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염려도 나타난다.

미분양수는 공급량에 비해 집값이 높은 경우 통상 증가하기에 집값 흐름을 예측하는 수처로 참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2.4%(129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11가구로 지난달보다 6.1%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3월 이후 8월까지 감소세였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2 부동산대책 등 규제와 더불어 공급 물량이 갑작스레 늘어난 흐름과도 맞물린다. 경기도의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9만4171가구로 상반기(1월~6월) 입주 물량(3만3749가구)의 세 배 조금 밑도는 숫자다.

실제 화성시의 경우는 82 대책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임에도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5.3% 상승했다가 5월부터는 보합세다.

전문가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단기적인 집값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지역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집값 하락이 2~3년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공급 물량에 따른 가격 하락은 보통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가가 먼저 떨어지고 회복되는 걸 매매가가 뒤쫓는 형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최고 입지 ✓초고층 ✓최대 규모

랜드마크 아파트 몰려온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속에서도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까지 규모나 상징성에서 지역을 대 표할 만한 랜드마크 아파트가 대거 분양을 앞뒀 눈길을 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역 내 최고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부터 최고층, 최대 규모, 첫 민간 공급까지 다양한 아파트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지역 집값을 리딩해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다 보니 원하는 수요가 꾸준해 경기불황에도 가격 하락의 변동이 크지 않아 리스크가 덜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혀 인기가 좋다.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인 '레미안 퍼스티지'가 대표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레미안 퍼스티지의 3.3㎡당 평균 매매값은 4988만 원으로 서초구(3193만 원)과 반포동 평균(3463만 원)보다 높아 지역 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이진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은 11월 중 부산 서구 송도 한진 매립지(암남동 123-15 일원)에서 첫 민간아파트인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메이시

티'를 선보인다. 부산 서구권에 최초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이자 245m 높이를 자랑하는 최고층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 내외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11월에 신길뉴타운 9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클래식'을 선보인다. 신길뉴타운 최종심에 들어서는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11월 하남 갑일지구 첫 민간아파트인 '하남 포웰시티'를 선보인다.

신길 뉴타운의 중심 '힐스테이트 클래식'인'

하남 갑일지구 첫 민간 아파트 '포웰시티'

동탄2 호수공원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지역 내 상징성 갖춘 단지 대거 분양 앞뒀

티'를 분양한다. 하남 갑일지구는 행정구역을 하남이지만 송파와 강동, 강남이 맞닿아 있어 강남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단지는 하남 갑일지구 3개 블록(B6·C2·C3)에 2603가구(전용 73~152㎡)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동탄2신도시 최고 입지로 꼽히는 동탄호수공원 앞 A86블록에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공급에 나섰고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그랜드센트럴' 공급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최대 규모의 단지로, 총 2336가구(조합원 포함) 중 1739가구(전용 59~119㎡)가 일반 분양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立地 따라 흥悲 갈리는 광고

센트럴타운·에듀타운·호수마을 뛰는데
신분당선 비껴간 웰빙타운 상대적 부진

수월 광고 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내부 입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고 신도시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광고는 센트럴타운, 에듀타운, 호수마을, 웰빙타운 등으로 이름 붙인 구역으로 나뉘어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광고 지역에서 예고된 호재의 기대감이 반영된 센트럴타운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매매가가 1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곳은 지난해 1월 신분당선의 정자-광고역 구간이 연장 개통돼 많은 단지가 지하철 역세권이 된 데다, 2020년에는 경기도청의 신청사가 광고의 중심부에 새로 들어선다는 호재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고 센트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 역할을 하는 1970가구 규모의 '광고 센트럴타운 e편한세상 1차'의 전용 101㎡ 가구는 올해 초 7억 원을 겨우 넘던 시세가 1년이 안

돼 8억 원을 돌파했다. 역시 광고 에듀타운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광고 자연엔힐스테이트 54단지' 역시 5억 원 후반~6억 원까지 형성됐던 올 초 시세가 현재는 7억 원을 웃돌고 있다.

이 밖에 광고 호수마을의 '광고잠누리레이크아파트'와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시 수지구에 속했지만 역시 광고 호수마을로 분류되는 '광고 상록자이', '광고 경남아너스빌' 등의 단지들도 주택형과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 한 해 적게는 5000만 원가량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육박하는 매매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고 웰빙타운의 경우는 광고 내 다른 지구의 상승세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광고호반베르디움'의 전용 84㎡ 가구는 올해 초 5억~5억3000만 원이던 시세가 지난해에도 여전히 같은 가격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역시 인근의 '광고e편한세상 2차'의 경우 전용 84㎡의 가격이



광고 센트럴타운 e편한세상 1차. 올해 초 7억 원을 겨우 넘던 전용 101㎡ 시세가 1년이 안 돼 8억 원을 돌파했다. 사진제공 대림산업

올해 초 5억4000만 원 안팎이었던 매매가가 최대 2000만 원 정도의 상승에 그쳐 광고 내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저조한 상승을 보였다.

이 같은 광고 웰빙타운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역민과 업계 관계자들은 구석진 입지와 교육·교통 인프라의 미비 등을 지목하고 있다. 신분당선 정자역이 단지들이 밀집한 지구 한복판을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같은 가격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역시 인근의 '광고e편한세상 2차'의 경우 전용 84㎡의 가격이

다. 또한 웰빙타운엔 고등학교가 없어 고교생 자녀가 통학하려면 2㎞ 넘게 떨어진 에듀타운의 광고고등학교까지 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기도 하다.

광고의 공인중개사 한 사무소 관계자는 "사실 웰빙타운은 버스노선이 너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편하다"며 "호수마을처럼 수변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광고 안에서 내세울 만한 장점이 애매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서울 아파트 ‘半전세’ 거래 1년새 반토막

중구·종로구 제외 모두 감소... 전세 입주물량 늘면서 세입자 입김 세져

서울시의 아파트 반전세(준전세) 거래 건수가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입주물량이 늘면서 세입자의 교섭력이 커진 데다, 재건축 진행으로 고실가구가 증가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준전세 거래는 1455건으로 전년 동기(2553건) 대비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20.8%), 월세(10.8%), 준월세(19.9%)의 감소폭보다 크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로구(7건), 중구(3건)를 제외하고 송파구(182건), 서초구(100건), 마포구(96건), 노원구(90건) 등 23개 지역에서 준전세 거래가 줄었다.

준전세는 한국감정원이 2015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변경'을 통해 도입한 개념이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를 의미한다. 준전세는 전세난 시기에 전세금 상승분을 세입자가 월세로 지급하면서 통용됐다. 저금리 기조에 목돈을 굴리기 어려운 집주인은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 이에 준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교섭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입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임대차 전체 거래(1만2336건)에서 전세(8855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8%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68.8%(전체 1만6250건, 전세 1만1181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입주물량이 증가한 것도 전세 선호현상에 힘을 실었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예정 포함)와 내년 입주물량은 각각 2만6718가구, 3만4925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2만5887가구보다 1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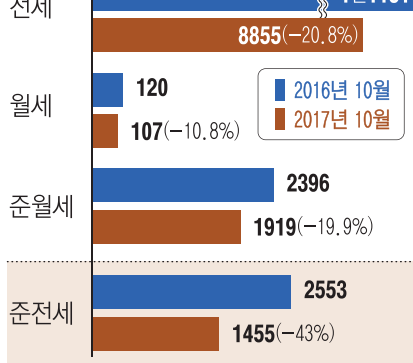
전국 기준으로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예정 포함) 38만572가구보다 5만 가구 이상 증가한 44만999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29만3021가구와 비교했을 때 15만 가구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물량이 많은 시기"라며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데 반전세 계약이 줄었다는 것은 전세 물량이 넘쳐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전세는 전세난의 후폭풍으로 생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현황

(단위 : 거래건수, 괄호는 증감률)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겨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타산이 맞아선 생긴 것"이라며 "결국, 전세난은 잠잠해지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서울시 재건축 시행 역시 준전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건축으로 멸실가구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줄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용도	소재지	건물 (㎡)	감정가 (만원)	최저임할가 (만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대	사건 번호
아파트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1 대원칸타빌 103동 15층 1502호	103	48,200	38,560	80%	11월 27일	북부8	2017-2427
아파트 (생활주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7 쌍용플래티늄-S 8층 812호	18	13,500	10,800	80%	11월 28일	남부5	2017-5119
주상복합 (아파트)	서울 송파구 송파동 58-1 잠실대우레이크힐드 12층 1303호	163	113,700	90,960	80%	11월 27일	동부6	2016-10760
아파트	서울 도봉구 쌍문동 285-5 동익파크 3동 10층 1009호	84	30,000	24,000	80%	11월 27일	북부8	2017-3062
아파트	서울 강북구 수유동 553-61, -62, 359-63 극동1동 6층 603호	159	46,000	36,800	80%	11월 27일	북부8	2017-5389
아파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 -1, 787-3 석수코오름하늘재 104동 12층 1201호	122	46,200	36,960	80%	11월 28일	안양1	2017-248
아파트	경기 부천시 상동 392 한아름마을 1506동 8층 803호	59	26,300	18,410	70%	11월 28일	부천1	2017-2477
아파트	경기 의정부시 선곡동 353-43, -357 서해 106동 18층 1813호	60	17,400	12,180	70%	12월 01일	의정부3	2017-14201
아파트	인천 서구 신현동 151-3, -20 효성 103동 3층 302호	71	15,900	11,130	70%	11월 30일	인천4	2016-511759
아파트	인천 연수구 송도동 3-44 송도해모로 101동 18층 1801호	123	55,100	38,570	70%	11월 30일	인천4	2017-501025

FT “머독, 자신의 미디어帝國 해체 시작”

‘머독의 시대’ 끝났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

86세의 머독은 TV 방송국에서부터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신문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미디어 제국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번 주 머독의 21세기폭스가 스포츠와 뉴스 부문을 제외한 자산 대부분을 월트디즈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머독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이런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 가격 등 계약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머독과 그의 두 아들 라클렌, 제임스가 미디어 제국 핵심 중의 핵심인 21세기폭스를 매각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FT는 머독이 수십 년간 구축했던 자신의 제국을 이제는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했다며 경쟁사인 타임워너 인수·합병(M&A)과 같은 ‘빅딜(Big Deal)’이 없다면 해체가 정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머독의 미디어 제국이 이런 처지에 놓일 것이란 상상은 전혀 할 수 없었다. 머독은 다른 회사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덩치를 키워왔으며 주위의 우려를 일축하고 과감하게 베풀는 성향으로 유명했다. 그는 1996

21세기 폭스 주요 자산 가치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 | | |
|--|--|
| ① 케이블 방송망 총 392억 달러
- 폭스뉴스/폭스비즈니스 165억 달러 (매각 제외 대상)
- 폭스스포츠 105억 달러(매각 제외 대상)
- FX네트워크 74억 달러
- 내셔널지오그래픽 26억 달러
- FXX 21억 달러 | ② 영화 엔터테인먼트 141억 달러
③ 기타 TV 사업 71억5000만 달러
④ 기타 자산
- 스트리밍 업체 홀루 지분 30%
- 영국 스카이 방송 지분 39%
- TV 프로그램 제작사 엔데몰사인
- 스타 인디아 등 |
|--|--|



핵심인 ‘21세기폭스’ 자산 대부분 디즈니에 매각 논의

6년 전 정치인 도청 파문 시작으로 앵커 성추행 등 악재

넷플릭스에 콘텐츠 사업 밀려…‘엔터’보다 뉴스 집중 전략

년 미국에서 보수 언론의 대명사가 된 폭스뉴스를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미디어 업계는 진보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머독의 실패를 점쳤으나 폭스뉴스는 미국 1위 시청률을 자랑하는 방송사로 성장했다.

머독은 2005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시초로 일컬어지던 마이스페이스를 5억8000만 달러(약 6458억 원)에 인수했으나 이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굴하지 않고 머독은 2년 후 50억 달러에 월스트리트저널(WSJ)로 유명한 다우존스를 사들였다.

그러나 불과 5년여 만에 악재가 잇따라 타지면서 머독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1년 168년 역사를 자랑했던 머독 소유의 영국 일요판 신문 ‘뉴스오브더월드가 폐간했다. 기자들이 경찰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을 해킹,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

여기에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머독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머독은 상황 타개를 위해 2013년 자신의 미디어 제국인 뉴스코퍼레이션을 언론·출판 담당의 뉴스코프와 영화, TV 등 영상사업인 중심인 21세기폭스로 쪼갰다. 2014년에는 21세기폭스와 타임워너 합병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그는 2015년 차남인 제임스 머독을 21세기폭스의 최고경영자(CEO)로 끌어올려 사실상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더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 언론의 대표인 폭스뉴스는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그런 와중에 로저 에일스 전 회장과 간판 앵커 빌 오라일리 등이 성추행 파문으로 퇴진하면서 폭스뉴스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결국 머독은 자신의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시점에 오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와 아마존닷컴 등이 공격적 콘텐츠 확보로 디지털 경쟁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이 21세기폭스가 디즈니와 매각 논의를 한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등은 스트리밍이라는 탄탄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폭스의 간판사업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내년에도 무려 80억 달러를 TV 드라마와 영화 등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폭스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이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뉴스와 스포츠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섰다. 니드햄의 로라 마틴 애널리스트는 “디즈니로의 매각 추진 논의가 차를 공개된 전날 폭스 주가가 9%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폭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디즈니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TIG리서치의 리치 그랜필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옮겨 가는 역량이 더 커지고 있다. 폭스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매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또 최고 부자인 형 때문에… 인도 통신재벌 디폴트 위기

사용자 7500만명의 ‘릴라이언스’

친형이 세운 이통사 저가 공세에 부채, 현금 자산의 100배 눈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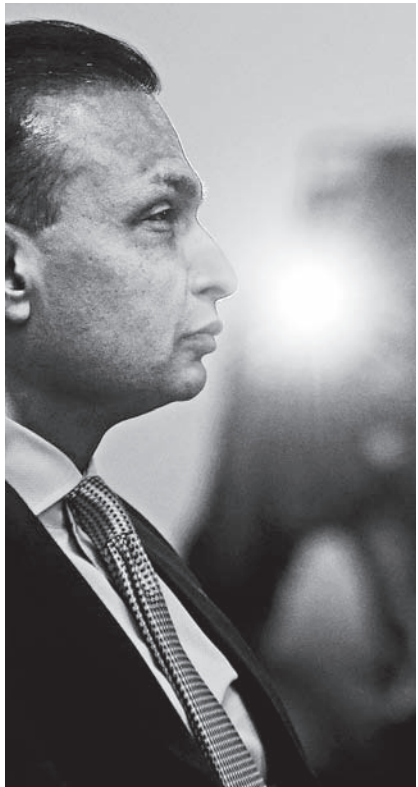
인도에서 7500만 명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통신 재벌 릴라이언스커뮤니케이션스(이하 릴라이언스)가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내몰렸다.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릴라이언스를 이끄는 암바니 가문의 형제간 경쟁이 위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릴라이언스는 6일(현지시간) 채권 이자 975만 달러(약 108억 원) 지급에 실패했다. 해당 이자는 2015년 5월 발행한 5.5년 만기의 3억 달러 규모 회사채에 대한 것으로, 연간 금리는 6.5% 수준이다. 릴라이언스는 유예기간 7일 이내에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내게 된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에서 “채무 재조정의 일환으로 내년 12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잡아 놓았다”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과 채권 소유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중지된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된 자산 매각을 통해 빚을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릴라이언스는 3월 기준 순부채가 4434억5000만 루피에 이르는데,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45억5000만 루피에 불과하다.

릴라이언스는 인도 최대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암바니가 이끌고 있다. 암바니의 재산은 31억5000만 달러에 이르지만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는 인도 시장에서는 그의 재력도 속수 무책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릴라이언스를 축복한 경쟁으로 몰아넣은 것이 암바니의 형인 무케시 암바니라는 것이다. 무케시는 얼마 전 중국 헝다그룹 수자인 회장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부호에 등극했다. 그는 정유사업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금을 무기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인도 릴라이언스그룹의 아들 암바니 회장이 6월 2일(현지시간) 뭄바이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통신업체 릴라이언스커뮤니케이션스는 현재 부도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뭄바이/AP뉴시스

특히 그가 세운 이통사 릴라이언스지오인포콤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무료 음성통화와 저렴한 데이터 사용료를 내세워 인도 이통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암바니 형제는 재산 상속 분쟁으로 인도판 ‘형제의 난’을 빚었다가 화해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혹독한 경쟁 속에서 통폐합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릴라이언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라이언스는 에어셀과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반면 영국 보다폰 인도사업부는 올해 아이디어셀룰러와 합병해 바르티에어텔에 이어 인도 2위 이통사 지위를 굳혔다. 바르티에어텔은 지난달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레노어 인도 사업부를 인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크리스마스 조명 밝힌 런던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쇼핑가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열렸다. 1959년 시작해 올해로 58회를 맞은 크리스마스 점등은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마법’을 주제로 1778개의 장식과 75만 개의 LED 조명으로 거리를 꾸몄다. 런던/EPA연합뉴스

사우디 ‘왕자의 난’…‘5성급 감옥’으로 전략한 리츠칼튼

트럼프·손정의 머물렀던 호텔

진짜 감옥 대신 왕자 11명 가둬

숙청 대상이지만 계파 명예 고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 됐다.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우디 왕실 인사들이 리츠칼튼 호텔에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5성급 호텔이 감옥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4일(현지시간)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1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중동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를 포함한 11명의 왕자, 4명의 현직 장관 등 6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그날 밤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의 모든 투숙객을 내보내고 체포한 이들을 호텔에 구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 당국자 두 명을 통해 리츠칼튼 호텔 구금 사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 전경.

홈페이지 캡처

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왕국 역사상 최고급 수감자”라며 “자위가 높은 사람은 범죄 혐의에도 강력한 권한을 유지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의 492개 객실은 이날 말까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 호텔 홈페이지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호텔의 인터넷 및 전화 회선 연결이 끊겨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CNN은 호텔 소유주인 메리이트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리츠칼튼 마케팅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약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 호텔은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당시 머물렀을 정도로 최고급 호텔로 꼽힌다. 지난달 말에는 ‘사막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대규모 국제 투자회의가 열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스투어트 갤러비 HSBC홀딩스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 이름은 손바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겸 CEO 등 3500여 명의 사업가·정부 관료가 모였다.

최고급 호텔에 숙청 대상자를 가둔 이유는 사우디 특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현재 사우디 왕국

은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초대 국왕의 후손인 왕실 계파들의 합의로 통치하고 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가족 구성원에 왕실 권력의 일부를 나눠 주고 대신 충성심을 확보해왔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를 감옥에 가둔다면 이들의 연결 고리가 끊기게 된다. 역사적으로 부족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우디에서는 족장이나 고위 인사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감옥 구금과 같은 모욕은 더 크게 받아들여진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사우디 고위 관료는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하는 방법은 가장 위엄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압둘칼릭 압둘라 전 에미레이트대학 정치학 교수는 “사우디의 사회적 규범이 깨지고 전통적으로 종족과 혈족을 묶는 관계가 더는 강하지 않다”며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문화적 준비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왕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인도네시아 멀어지는 ‘土木공화국’ 꿈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돈줄 바닥

자국기업도 투자 꺼려 성장 악재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은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더뎠다. 지면서 경제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최근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마트라섬을 남북으로 잇는 2300km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가 원활해지고 관광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노력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지방을 돌아보느라 일주일에 2~3일만 자카르타에 머물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역 개발을 중시하는 조코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역대 정권과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조코위 정부는 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폐지해 인프라 건설 재원을 마련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가진 중산층 이상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대선 지역을 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다. 2015~2019년 4800조 루피아(약 39조 원) 상당의 프로젝트 247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속도는 더디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남겨두고 6월 기준 5개의 프로젝트만 완성됐다. 사업의 핵심인 발전소 건설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2019년까지 5년 동안 35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과 추진할 예정인 고속철 사업은 지난 해 1월 가공식 이후 진전이 없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만성적 자원 부족과 민간합작투자사업(PPP)의 한계 때문이다. PPP란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고 공공 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보수 등을 맡는 대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투자 규모가 큰 인프라 건설에 활용되고 있다. 스리 불라니 인프라와티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도해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PPP를 꺼리면서 개발이 더뎠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지적했다.

인프라 건설이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도 기대를 밑돌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주요 20개국(G20) 중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기대보다는 낮다. 정권 출범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7% 성장을 목표로 했다. 올해 성장률도 5.4%가 목표다. 그러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5%에 머물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국내외서 혁신적 ‘핀테크’ 사업모델 구축”

日SBI 투자 유치한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쿼터백자산운용으로 유명한 데일리금융그룹의 신승현 대표는 7일 일본 자본시장의 큰손 SBI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무려 세 번째 투자로 SBI그룹의 신뢰와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이라는 비전은 신승현 대표가 박상영 현 고문과 2015년 2월 회사 창업 초기부터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경영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전략을 짜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암호화폐 등 다양한 신개념 핀테크 서비스를 불과 3년여 만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이번 투자자금은 SBI인베스트먼트

‘일상 풍요로워지는 금융’ 목표 AI·블록체인 등 핀테크 서비스 거침없는 리더십으로 해외 진출

가 조성한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펀드를 통해 조달된다. 이 펀드에는 일본 지방 금융기관 28곳과 미즈호 은행, 소프트뱅크가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계약상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금액에 대해선 함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투자받은 자금은 총 1067억 원이다.

특히 데일리금융그룹 내 다양한 회사들의 핀테크 역량이 이번 투자 유치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중간지주사이자 핵심 자회사인 쿼터백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전문운용사로 한국 로보어드바이저 부문 최대 규모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인텔리

전스의 경우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증권업계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기술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데일리금융그룹은 통합 가상화폐거래소(코인원), 해외송금(크로스), 주식형 로보어드바이저(뉴지스탁), 디지털 보험 매니저(레몬클럽), 간편결제(페이엣), 자산관리(브로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회사의 거침없는 해외 진출에는 신승현 대표의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 대표는 삼일회계법인 금융본부와 영국 타워워스톤 보험금융 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업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다가 데일리금융그룹을 출범시켰다. “한국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힌 신 대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데일리금융그룹의 신승현 대표는 “한국 핀테크 대표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 데일리금융그룹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김도형 연세대 교수 선임

동북아역사재단은 김도형(사진)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제5대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3년.

김 선임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근현대사 전공 역사학자다. 2000년부터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사연구회 회장,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배정혜 ‘아름다운 무용인상’

‘제5회 아름다운 무용인상’ 수상자로 배정혜(사진) 한국 무용가가 선정됐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7일 “배정혜 선생은 한국 창작춤의 건축가로 불리며 50여 년간 한국 창작무용을 개척해왔다”며 “1970년 이후 전통춤의 재창작 작업을 시작한 이후 한국 창작춤의 세 지평을 열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센터는 한국 무용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무용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3년 ‘아름다운 무용인상’을 제정했다. 그간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박금자 성암아트홀 이사장,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김화국 원광대 무용과 명예교수가 이 상을 받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 △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생명기술과장 서경춘 △미래인재정책과장 황판식 △미래인재양성과장 박지영 △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최준호 △전파기반과장 마재욱 △소프트웨어교육혁신팀장 이현정 △통신서비스기반팀장 김연진 (과장급 파견)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남철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신문 (승진) 광고국 광고관리부장대우 김창희 △월간국 렉스엔 취재팀장 김병수 △주간국 주간판매팀장 김현 △편성국 편성기획부 부장대우 석정혁 △홍보실 홍보부 부장대우 서주영 △기획실 신규사업부 부장 이민호 △건설본부 부장대우 최봉욱

◆TV조선 △편성본부 부국장 이인재

신동빈 회장 인도네시아 출국… 東南亞시장 점검

〈롯데그룹〉

마트·백화점 사업장 둘러보고 제휴 살림 회장 만나 협력 논의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현지 시장 점검에 나선다. 7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출장에는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동행했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는 8일 출국해 인도네시아 일정에 합류한다.

롯데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마트 45개 점포와 백화점 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내달에는 람평 지역에 46번째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리아는 30개



점, 엔제리너스 3개점, 롯데면세점 2개점(공항점, 시내점)이 현지에서 영업 중이다. 신 회장은 이번 출장기간 동안 제휴 관계인 앤써니 살림 살림그룹 회장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회장은 2013년부터 ‘한-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의 경제계 의장을 맡으며 롯데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롯데가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핵심 지역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6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39세 이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61.4%를 차지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3%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롯데의 해외 매출 약 12조 원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인도네시아 출장 기간에 마트와 백화점 등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사업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12월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시인 서효인·소설가 손보미 ‘대산문학상’ 수상

희곡 장우재 작가, 번역 오록 교수

대산문화재단은 제25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으로 시 부문에 서효인(36) 시인의 ‘여수’, 소설 부문에 손보미(37) 작가의 ‘더어 랍프 로렌’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희곡 부문은 장우재(46) 작가의 ‘불역패재’, 번역 부문은 경희대 명예교수인 케빈 오록(78)의 영역작 ‘한국시선집 : 조선시대’(The Book of Korean Poetry : CHOSUN DYNASTY)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시 부문 ‘여수’를 “이 땅의 여러 장소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돋보이고 상투적 현실 인식에 안주하지 않는 풍성한 발견과 성찰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소설 ‘더어 랍프 로렌’은 “다국적 소비문화의 영향 아래 자기 인식의 언어를 배운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서사적 상상의 발발함으로 표현했다”고 평했다.

‘불역패재’는 “역사적 소재에서 취한 이야기 전개가 흥미롭고 변두리적인 자 신만의 시각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 오늘



7일 열린 ‘제25회 대산문학상’ 기자간담회에서 번역 부문의 케빈 오록 경희대 명예교수(왼쪽부터), 희곡 부문 장우재 작가, 소설 부문 손보미 작가, 시 부문 서효인의 작가 등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희곡 세계에서 독자적인 문체를 구축했다”는 평을, ‘한국시선집 : 조선시대’는 “한국의 열과 문학성을 살린 가독성 높은 번역이자 한국문화, 역사, 한국시를 이해하려 노력한 해외 연구자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시·소설·희곡 수상작은 내년도 번역 지원 공모를 통해 주요 언어로 번역돼 해외에 소개된다. 상금은 부문별 5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부음

▲신진철(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 팀장)·연철(사업부 부친상 = 7일, 전북 남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063-635-4456

▲김재완(덕성여대 약대 명예교수)씨 별세, 두회(사업)·미선(한국체육대 강

사)·미란(한국체육대 강사)·미정(서울아산병원 치과 의사)씨 부친상, 이재현(충북대 녹색ICT센터장)·한정희(한치과의원 원장)·김대겸(치과의사)·신익순(신익순한의원 원장)씨 장인상 =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010-2295

▲김원형(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수

석코치)씨 장인상 = 7일, 영남대의료원, 발인 9일 오전 7시, 053-620-4231

▲임동욱(한국씨티에스 대표)씨 장모상 = 7일, 전주 예수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63-285-1009

▲박준웅(김영우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 7일, 양산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55-366-4440

한국여성 인물사전

〈230〉수원권씨(脩媛 權氏)

비구니로 헌강왕의 명복을 빈 후궁

수원 권씨(脩媛 權氏)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의 후궁으로, 법호(法號)는 수원(秀圓)이다. 후궁의 품계 중 하나인 수원(脩媛)은 정2품에 해당된다. 그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없다. 9세기 중후반에 최치원이 찬(撰)했다고 알려진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를 비롯한 불국사 관련 자료 중 ‘화엄불국사비로자나불문수보현보살상찬병서(華嚴佛國寺毘盧遮那佛文殊普賢菩薩像讚并序)’에 보인다. 불국사에 비로자나불과 문수보현보살상을 바친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그 기록에 따르면 수원 권씨는 헌강왕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해[追福] 비구니가 되어 불국사에 머물렀다.

불국사 광학장(光學藏)의 강실 왼쪽 벽에 그린 불상은 수원 권씨가 명복을 추모하기 위해 모신 것이다. 호두모수(虎頭妙手), 즉 중국 동진(東晉)의 고개지(顧愷之, 344~466년경)처럼 뛰어난 화가를 불러 그린 불상으로, 부처님의 좌우에 보살이 근엄하게 늘어서 있고, 가람은 동서로 빛나는 형세였다. 부처의 화상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글로는 형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원 권씨가 헌강왕을 위해 부처의 상을 그리게 했고, 그 후에 최치원이 찬하였다. 최치원이 찬한 시점은 ‘광계정미년 1월 8일[光啓丁未正月八日]’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신라 50대 정강왕(定康王, 재위 886~887) 2년인 887년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헌강왕이 죽

은 해를 886년 또는 887년이라고 기록하였다.

위의 문건에서는 헌강왕이 죽은 이후 당으로부터 추증된 ‘증태부(贈太傅)’라는 칭호가 보이므로 887년 이후에 찬이 쓰여졌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이에 최치원이 두 번째로 입당(入唐)한 시기인 신라 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재위 887~897) 7년(893) 이후 쓰였다고 보기도 한다. 수원 권씨가 바친 부처상은 비로자나불(Vairocana)로, 노사나(盧舍那) 또는 대일여래(大日如來)라고도 하는데, 두루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이다. 형상이 없고, 어느 곳에도 존재하며 일체중생을 보호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 한다.

불국사에는 국보 제26호인 금동비로자나불(金銅毘盧遮那佛)이 있다. 조각 양식의 특성으로 보아 9세기 중후반에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에 수원 권씨가 상찬한 비로자나불이 불국사의 금동비로자나불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치원 찬에 의하면 수원 권씨가 조성한 부처상은 금동불이 아니라 불화인 것을 알 수 있다.

왕이 죽은 이후 비빈(妃嬪)들의 삶은 어떠할까. 수원 권씨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절에서 거주하며 명복을 비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왕의 죽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이는 그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이현주 고대사 전공자, 성균관대·아주대 강사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박물관 설립추진협의회



마원(왼쪽에서 3번째) 알리바바그룹출딩 회장이 출연한 태극권 영화 ‘공수도(攻守道·The Art of Attack and Defence)’ 포스터. 마원 웨이보

태극권 영화 출연 이어 가수 데뷔까지…

버킷리스트 실행하는 마원 회장

〈알리바바〉

영화·노래, 광군제 맞춰 공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마원 회장이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 목록)’를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 회장은 태극권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는 것은 물론 가수로 데뷔까지 하면서 자신의 오랜 소원을 성취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소개했다.

마 회장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지난 3일 홍콩 유명 가수 왕페이와 함께 녹음한 노래 파일을 링크로 올렸다. 노래 제목은 ‘평정양(風清揚·풍정양)’으로, 진용(鎭勇)의 무협지 ‘소호강호’의 등장인물이다. 마 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자신을 평정양으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무협지를 좋아하는 다. 이 노래는 세계 최대 쇼핑 축제인 11월 ‘광군제(독신자의 날)’에 맞춰 공개될 단편 영화 ‘공수도(攻守道·The Art of Attack and Defence)’의 주제가로도 쓰인다.

중국 네티즌들은 마 회장의 노래가 영화 주제곡에서 빠져야 한다고 혹

평했지만 마 회장은 청취자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농담으로 응수했다.

‘공수도’는 단편 영화이지만 한 시대를 품미한 중화권 액션스타들이 총집결했다. 리렌제(李連杰·이연걸)와 전쯔단(甄子丹·견자단), 홍진바오(洪金寶·홍금보)가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감독은 리렌제가 맡았다. 영화에서 마 회장은 주인공에게 태극권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회장은 건강 유지를 위해 젊은 시절부터 태극권을 하고 있으며 틈만 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를 권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리렌제와 함께 온라인 태극권 강습 사이트인 타이지젠(Taichi Zen)도 운영하고 있다.

마 회장의 영화는 광군제 분위기를 띄우는 이벤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군제 전야제인 10일에 예고편을, 11일에는 본편을 행사장에서 공개하고 12일 이후에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 등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정책발언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타이레놀 위기에서 배우는 '실패'

1982년 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약국 등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몰래 청산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의 회수를 권고했다. 단순한 리콜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제조사가 취한 그 이상의 조치로 인해 주목받게 되었다. 제조사는 병원·약국과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1억 달러 상당의 타이레놀 유통량 전체를 회수하였다. 또한, 아예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포장지를 개발하여 재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35%에서 7%로 급락했던 시장점유율은 원래 상태를 되찾게 되었다.

‘윤리 경영’의 사례로 잘 알려진 이 일화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뢰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실패 위기를 겪고 있다. 9월 28일 위원 헌당 과정 기록 의무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적 접촉 금지 등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음에도, 퇴직자나 대형 로펌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위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위가 정부 기관 최초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 바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이다.

우선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은 인적사항 등을 등록한 후 공정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등록 대상 외부인은 조사 정보 입수 시도와 같이 비밀 입수와 관련한 준수 사항,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금지 등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직원들도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외부에서 만나거나 전화·SNS 등을 통해 접촉할 경우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하지 않는 외부인과의 사건 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전원의 침묵 및 진술조사와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공정위 직원·간부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고, 어쩌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정부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존재의 위기를 맞아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물갈릴 수 있다. 공정위가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는 강도 높은 신뢰 회복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의 음성과와 규제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정위가 한발 앞서 실현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안에 세부 절차를 담은 공정위 예규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黜黨과 보수 統合

결집하지 못하고 아예 숨어버렸다는 현실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거취 결정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지지율을 들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거시기 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경우 역시 때우 때우 일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당 지지율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정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홍준표 대표로선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출당했고, 그래서 이제부터의 관심사는 ‘출당 조치가 과연 원하는 효과를 불러올까’이다. 우선 지지율부터 생각해 보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간의 지지율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지

역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로 지지층 이반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그 대신 수도권에 있는 보수층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출당 조치로 홍준표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바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의 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정계를 떠나 있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 끝난 후, 다른 대선 후보보다 빨리 정계에 복귀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본인이 망망히 져야 할 대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대선 패배의 궁극적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거꾸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선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효과는 여 거기까지일 수 있다. 즉, 자유한국당이 몸을 단지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 상승과 같은 효과는 일회성으로 끝날 위험이 있고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롭다’는 이미지다. 혁신 과정에서는 인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새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개선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선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새롭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참신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셈이다. 만일 여기서 실패한다면, 집도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다. 제발 해답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알쏭달쏭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서리 상’, ‘잎사귀 엽’, ‘붉을 호’, ‘여조사 아’, ‘둘 이’, ‘달 월’, ‘꽃 화’로, ‘서리 맞은 잎사귀가 2월의 꽃보다 더 붉다’는 뜻이다. 중국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산행(山行)’이라는 시 마지막 구절이다. ‘여조사 아라고 혼동하는 ‘於’는 대부분 초소적 조사로서 ‘에’ 혹은 ‘에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글자인데 여기서 는 비교급 조사로 ‘보다(better)’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2월은 당연히 음력 이므로 양력으로는 3월에 해당한다. 새봄의 꽃이 붉게 피어날 때이다. 새봄에 젊음으로 피어나는 꽃만 붉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서리를 맞은 단풍잎도 꽃 못지않게 붉고 아름답다. 붉게 타는 단풍을 보면서 노인은 노인대로 노년을 단풍처럼 붉게 물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단풍을 아끼듯이 노인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일사능광변소년(一事能狂便少年)’이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일에 미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소년”이라는 뜻이다. 노인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일에 미친 듯이 정열을 쏟는다면 젊은이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인생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70대 노인이라도 지금 서예를 시작하면 서예가가 될 수 있고, 그림을 시작하면 화가가 될 수 있으며, 기타를 시작하면 기타리스트

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인에게도 자신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음으로써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가을, 붉게 타는 단풍을 보면서 봄, 여름 내내 충전하는 기상으로 잎과 꽃을 피우다가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꽃보다 더 붉게 태우는 단풍의 속삭임과 유언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러면 노인의 경험과 타이르는 말에도 귀 기울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저모 1박2일 한국에 머문 트럼프 “文정부 외교의 성과” “퍼주기 외교 아니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8분께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소속 한미 장병과 점심을 함께하고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노고를 치하했다. 오후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동맹 강화 등과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범세계적 도전 과제인 테러리즘, 여성 인권, 보건 등에 대한 것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네티즌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트위터 아이디 ‘@OnePun****’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탄도 중량 해제, ‘코리아패싱’ 없다는 말까지 이끌어냈으니 문재인 정부의 대단한 성과지”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rmfm****’은 “청와대 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한 건 신의 한 수였다. 특히 이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기대되더라”라고 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zeta****’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하는 것 눈에 다 보이더라. 다소 미국에 퍼주기 식 외교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www.119medical.co.kr

즐거움 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정승호의 키워드

– ‘아틀라스’의 쓰러진 고목

들들 볶인 기업인들의 罷業



언론인
전 코스카저널 논설주간

신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부의 기업 붕괴’가 실린다. 가장 최근 것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씨의 발언이다.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늦게 참석한 그는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첨으로 갑작은 말이다.

절세(絶世)의 절세(絶倫) 기법으로 비난받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씨는 교수일 때 재벌을 암세화에 비유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재벌을 봐줘야 할 이유가 뭐냐”며 면세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내로라하던 면세점 몇 개의 문을 닫도록 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내몰리게 했다. 기업인들이 그의 장관됨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김상조 씨와 홍종학 씨 같은 사람들의 이런 발언과 행동은 1957년에 나온 에인 랜드(Ayn Rand, 1905~1982)의 대하소설

‘아틀라스(Atlas Shrugged)’의 다음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떡갈나무는 땅속으로 뻗은 뿌리가 언덕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서 거인이 나무 끝을 잡고 흔들면 실에 매달린 공처럼 언덕과 지구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았다. 무슨 일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을 그 떡갈나무는 가장 위대한 힘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밤, 그 떡갈나무가 반개를 맞았다. 떡갈나무는 두 동강이 난 채 쓰러졌다. 검은 타널 입구를 들여다보듯 살펴본 나무속은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고, 약한 바람에도 허공으로 흩날리는 잿빛 먼지만 남아 있었다. 나무의 생명력은 사라졌고 뒤에 남겨진 형체는 생명력 없는 지탱할 수가 없었다.〉

세 권인 번역본 제 1권 도입부에 나오는 이 구절은 길고 긴 ‘아틀라스’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총 2700쪽이나 되는 이 소설의 줄거리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생산 없는 본배, 발전보다는 평등주의가 지배하는 미래 어느 날의 미국. 권력은 무능한 정치가와 이상만 좇는 지식인들, 목소리 큰 선동가들(그중 일부는 부패했

다)의 수중에 들어간 지 오래이다. 그 결과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이게 되고, 기업인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둘 콜로라도 산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 자기가 잘 하는 것에 매진하며 간섭하지도, 간섭받지도 않는 삶을 산다.〉



에인 랜드

에인 랜드의 ‘고목’은 포퓰리즘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나라, 기업인들이 파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나라를 상징한다. 기업인들이야 콜로라도든 하와이든 스위스든 자기네 좋은 곳을 찾아 거기서 자기네 세상을 다

시 만들거나 어울려 살 수나 있지, 이 나라 술한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어떻게 하나. 그냥 앉은 채로 다가오는 운명을 맞는 수밖에 없나? 답답하지만 답이 없다.

에인 랜드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폭폭한 유대인 여학생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의 모순과 그것이 가져온 비극을 몸으로 겪었던 그는 1926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소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으려던 195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 보낸 경고로 해석된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사악하게 옹호한 소설’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영국 BBC는 지난 세기말 이 소설을 “성경 다음으로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요즘도 매년 수만 권이 팔린다.

이 글을 쓰던 날 아침 신문에 “경제는 명령으로 안 돼… 한국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정부”라는 제목의 인터뷰가 실렸다. 인터뷰 대상은 전직 고위관료. ‘기업에 좋은 게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게 기업에 좋다는 기업형 국가를 줄곧 말해온 사람’이라는 소개가 있었다. 혹시 그가 ‘경쟁’이라고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객석

황 태 규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놀이시설, 安全이 최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이시설을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한때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놀이기구가 고장 나는 등 안전사고로 이용객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래에도 실내 놀이기구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서서 이용객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법 규정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유기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춰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16년 개정되면서 캠핑장·도로 휴게소·

공공도서관·자연휴양림·하천구역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군부대 혹은 수련원의 놀이시설은 여전히 법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엔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해당 놀이시설의 규모나 이용자의 수 등에 비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놀이시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안내판이 없거나, 이용안내판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게시돼 있고, 정작 다친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또는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응급사고 발생 시 연락처·유휴기간·보험가입 정보 등 실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

최 재 혁 기업금융부/freshphase@

채용 비리 금감원 “억울하다”?



들리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한다. 채용비리 등을 종합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구속되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고위직 인사 전원이 교체될 것이라고 하자 “우리만 본보기(例示) 삼는 것 아니냐” “또 교수 출신이나” 등 서술하자면 분량을 맞추기 어렵다.

이런 인식의 근저에는 특혜 의식이 있다. 금감원에서 일했으면 퇴직 후 서너 자리는 볼 수 있든가, 자리 보전이 안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식의 인식이다.

조직의 수장은 내부 구성원의 마음을 달래 줘야 한다. 저 먼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 또는 일부의 부정을 모른 채 눈을 감고 가자는 뜻은 아니다. 새 술을 기존 부대에 담아도 청소는 해야 한다.

문의 02-325-5676 문학의숲 수필선



맛갈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겨우와 겨우 사이를 들여다보다

이숙영 수필집

보석을 찾는 마음

이숙영 지음 | 15,000원 | 276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렵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 형제·시댁 식구·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교포 생활을 ‘맛갈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나 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 박덕민 (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삶이란 보석을 찾았다
이숙영의 수필은 작위적인 구성이나 지나친 정서의 표현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다. 일상적인 문법에 충실하면서 소박한 기록과 절제된 정서로 만들어진 글들은 수필 읽기의 큰 미덕이다. 꾸밈이 없는 글쓰기, 그것은 이숙영 수필이 지향점이고 매력이다. 화려한 걸치레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고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힘이 있다.
- 김동혁(문학평론가)

조직위 財政부문 전방위 지원... '세계의 광고판' 弘報 효과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금고지기' KEB하나은행

111억 후원하며 공식스폰서 획득...2020년까지 대한체육회 등 재정 관리
조직위 엠블럼 등 지식재산권 사용 및 스폰서 표기 노출권 등 독점
올림픽 금융상품 출시...올림픽 사업 中企에 21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도



4년을 주기로 열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TV 중계를 통해 180개국, 50억 명의 시선에 기업 브랜드를 선전할 수 있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케팅 호기다. 더구나 평창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맞이하는 진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KEB하나은행, 111억 원에 달한 공식 후원 은행 = 은행권에서 평창올림픽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4월 111억 원을 후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스폰서 지위를 얻었다. 이번 낙찰 금액은 당초 조직위원회가 전망한 15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후원 압박이 줄면서 주거래은행 낙찰금액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부담을 안고 있던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와 입장권 판매대금 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까지 조직위의 모든 재정(수신·예산·외화·송금거래 등) 부문을 담당하는 금고은행이 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 부문까지 담당하는 독점적인 권리로 갖게 된다.

또한 2020년까지 조직위의 엠블럼 등 휘장 사용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과 마케팅 프로모션권, 온·오프라인상의 스폰서표기 노출권, 개폐막식 구매편이나 숙박 교통권 지원 등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받는다.

하나은행은 이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왔다. 대한축구협회와도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축구 FA컵 대회, FC서울 공식 후원뿐만 아니라 AFC(아시아축구연맹), FIFA(국제축구연맹) A매치 등 전 경기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공식 후원사 올림픽 전용상품 잇따라 출시 = 하나은행은 올림픽 개막 D-100일인 1일부터 행사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올림픽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평창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연 1.718%에 우대금리 연 0.5%를 더해 11월 1일 세전기준으로 최대 연 2.218%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4위 이내를 달성하면 연 0.2%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하나은행 평창 적금'은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0.8%가 더해져 최대 연 2.5%까지 가능하다.

특히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으로 판매 기간 중 가입 계좌의 연평균잔액 0.1%를 올림픽·체육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림픽·체육 관계자 등에게는 가입 후 1년간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선수단 지원에도 나섰다. 9월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림픽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을 통해 총 21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10월 평창 동계올림픽 루지 경기장을 방문해 루지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2억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부터 비인기 동계스포츠 종목인 대한루지연맹을 후원해왔다.

◇스포츠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여 = 하나은행은 기념은행권·기념주화·기념화폐의 예약 접수도 받고 있다. 동계올림픽 기념은행권과 기념주화 2차분 발행에 대한 공식 예약 접수처로도 참여했다. 기념은행권은 낱장형, 2장 연결형, 24장 전지형 3가지이며 기념주화는 금, 은, 황동화로 디자인됐다.

하나은행은 2000원권 지폐에 대한 예약접수도 진행 중이다. 평창올림픽 기념지폐는 17일 한국은행에서 230만 장 규모로 발행하며 9월부터 예약접수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나 선수에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큰 홍보 효과를 불러온다"며 "동시에 스포츠 후원은 마케팅 수단에서 나아가 고객들에게 사회공헌의 의미로도 인식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스포츠 마케팅팀 관계자는 "물적 후원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올림픽 기간에 출장소 4곳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선수들과 이용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후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통상 올림픽 개막 전 9일과 폐막 후 3일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정한 '마케팅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올림픽 종목별로는 후원이 가능하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선수단을 후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T H I R T Y S O M E T H I N G

MUSICAL

서른
것
음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



10/31 마지막 티켓오픈

2017.10.20 ~ 2017.12.2 이화여대 삼성홀

산들(B1A4) · 백형훈 · 이정열 · 조순창 · 유주혜 · 케이(김지연)

제작 사에그들엔트 주최 뮤지컬 서른것음에 문화산업진흥원회 주최 뮤지컬지니언제스튜디오 주식회사 IBK 기업은행

국가대표 후원·인프라 구축 지원... '올림픽 마케팅' 열 올리는 은행들

은행연합회 '성공개최 기원' 200억 기부
KB·신한금융·IBK기업은행은 선수 지원

은행권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08 평창 겨울올림픽 및 겨울패럴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협약은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연합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200억 원을 내놓기로 결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EB하나은행은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이미 약 111억 원을 후원했다.

이 밖에 은행권에서 추가로 10억 원 규모의 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사들여 은행들의 지원 규모는 총 321억 원에 이른다.

9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2000원권 기념지폐 예약접수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17일 2000원권 지폐 230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판매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에서 예약접수에 참여했다.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평창 동계올림픽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은 현재 쇼트트랙(심석화·최민정·국가대표팀), 피겨(조준원·최다빈·임은수·김예림·유영·국가대표팀), 봅슬레이(원운중·서영우·국가대표팀), 스키(김민준)를 후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된 '캘럭시아SM'과 협약을 맺고 KB손해보험과 연계한 스포츠인 전용 상해보험과 KB국



IBK기업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대표팀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민카드 '리브메이트(Liiv Mate)'와 연계한 팬클럽 행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대한스키협회를 통해 동계 스포츠 핵심 종목인 6개 설상종목(알파인 스키·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스노보드·프리스타일·노르딕복합)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특히 최재우 모굴스키 선수와 김마그너스 선수는 2017년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해 기대를 높인다.

IBK기업은행은 바이애슬론팀 지원을 위해 (사)대한바이애슬론연맹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바이애슬론은 금메달 11개가 걸린 종목이다.

우리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730억 원을 투자, 현지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계열사인 우리카드를 통해 평창 공식 후원사 비자카드와 올림픽 카드를 공동 출시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부자들이 投資하는 ‘稅혜택 해외주식형 펀드’ 관심을



PB의 **타타임**

오 온 수

KB증권
WM스타자문단 팀장

국내 자산시장이 빅 이슈에 의해 연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부동산 투자자의 선행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을까? 부자들의 투자 방향을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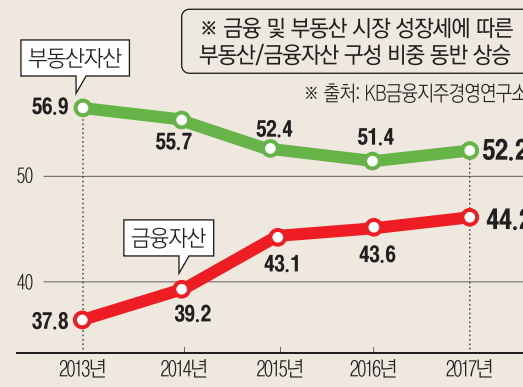
◇균형 잡아가는 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 구조 = “우리는 일생일대의 폭락장을 앞두고 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The Worst Crash in Our Lifetime is Coming).”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짐 로저스가 올해 6월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의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된 것인지 국내 주식시장은 8~9월 조정에 들어갔다. 북한과 미국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됐다. 강 대 강 위험적 발언과 마중 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여기에 3분기 실적의 피코아웃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IT를 중심으로 외국인 의 매도가 이어졌다.

자산 시장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도 규제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



한국 부자의 자산 구성비 변화 추세 (단위: %)



자금의 눈치 보기도 시작됐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자의 선행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을까?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의 영향으로 부동산이 주목받았지만, 금융 자산으로의 자산 구조 변화는 지속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이것은 국내 일반 가계의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9.2%로 특정 자산에 치우친 구조를 보이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부자들은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도 보수적 입장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에 달했다. 그중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였는데, 이는 전년대 비교

했을 때 11.8%p 증가한 수치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풍선 효과 기대되는 세제 혜택 상품 = 정리해 보면 확실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등 규제 강화는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그중 올해로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 혜택 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현시점에서 환기할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면 자본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다른 세제 상품과 다른 점은 소득 금액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언제 환매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1인당 가입 금액에 한도가 있고, 내년부터는 환매만 될 뿐 리밸런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이철환의 **돈 이야기**

‘투자 제1 원칙’ 過慾 버리고 正道 취하라

한 곳만 집중하면 실패 위험성 커져

포트폴리오·투자 성향부터 파악해야

투자 행위는 재테크 차원을 넘어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 자산관리와 투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투자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자 전술이다. ‘포트폴리오(portfolio)’란 위험을 줄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주식, 사채, 현금, 상품,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비율을 설정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투자를 할 때 너무 한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실패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투자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더 잘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개인과 시장의 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성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목표수익률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정한 후,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포트폴리오 설계에 대한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100-나이 법칙’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는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마디로 젊을수록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편중시키고, 나이가 들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줄이는 대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둘째,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 배분과 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이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장기로 묶어둘 것인지,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자금의 수시입출이 가능케 할 것인지를 문제와도 연결된다.

부동산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노후 대비가 취약한 상황이다.

셋째,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 목적과 기간이 장기투자인지 단기투자인지를 잘 인식하고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우선,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위험이 적은 상품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MMR, RP, CMA 등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 분산투자가 더 유리하다.

다음으로 중기 목적자금은 내집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 비교적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다소 공격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인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투자위험을 제한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장기 목적자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므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상품

이 바람직하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데 비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와 자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은 장기연금저축이나 보험상품 등이라 하겠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투자전략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넷째,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균형을 잘 살려야 한다. 이는 결국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전략의 문제이다. 우선 ‘원금보장 추구형’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원금손실을 매우 꺼린다. 때문에 이들은 수익성은 작더라도 안정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회사 환매조건부채권, 국채, 일반 회사채처럼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원금보장형과는 정반대의 투자 유형으로 ‘고수익·고위험 투자형’이 있다.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려는 공격성을 띤다. 그러므로 확정금리형 상품투자는 줄이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 변동 폭이 커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주식 비중이 높은 고위험 펀드가 적당하며, 나이가 자산의 일정부분은

펀드 가입을 통한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익의 대박만을 노리는 무모한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균형 투자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지만,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는 투자는 사양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상품과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상품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 펀드에 가입할 때도 적립식 펀드나 주가연동상품과 같이 중간 수준의 위험펀드로 분류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투자전략들도 실제 자산관리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원칙은 과욕을 버리고 정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탐욕적인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험을 줄이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는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될 것이다. 그 결과 꼭 필요한 시기에 또 꼭 필요한 용도에 거둬들인 수익금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문, GWI 발표기준)

癌 후유증·합병증 입원 치료 땀 保險金 못받아요

이주의 금융꿀팁

직장인 김모(50세) 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예)’으로 진단받았으나, 보험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악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가입 90일 지나야 보장…1~2년 내 암진단 시 보험금 50%만 지급 =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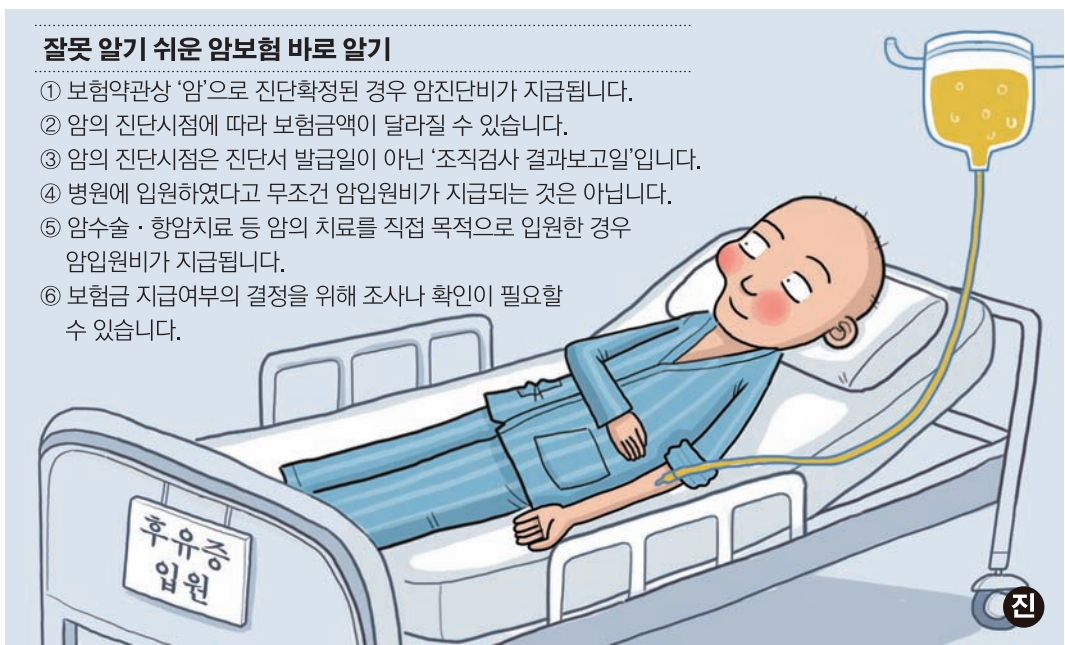
종양 제거 수술·방사선·항암 치료 등 직접 치료 목적에만 입원 보험금 지급 계약일 포함 91일 이후부터 보장 개시 1~2년내 암 진단시 보험금 50%만 지급 암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암 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된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암 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암보험의 경우 자기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



관을 확인해야 한다.

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다. 암의 확정 진단 시점과 관련한 병원 관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악관상 암의 진단 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 보고일로 인정되며, 이를 기준

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된다.

◇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보험금 지급 =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총

분히 가능한 상태로 △병원 등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뜻한다.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 목적으로 인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익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회사)이 진행될 수 있다. 필요시 보험회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한다.

박규준 기자 abc84@

금융 이슈 따라잡기

기업 재무 안정성도 ‘富益富 貧益貧’

資産 2조 이상 대기업 재무성과 크게 개선된 반면 中企는 미미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제조업·정보통신업 재무구조 다소 惡化

국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된 것은 저금리 기조에서 기업들이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 추세가 지속 가능한가는 향후 금리상승 등 거시 요인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1853개 상장기업의 2014년부터 3년간의 이자보상비율 및 부채자산비율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재무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선 효과가 거의 없고, 업종별로 전자전기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했다.

기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014~2016년 총영업이익이 연평균 19% 증가한 데 비해 총이자 비용은 연평균 2% 감소함에 따라 가중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363%에서 2016년 533%로 증가했다. 기업별 이자보상비율에 따른 누적 부채비중 분포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 기울기가 완만해져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2015년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증가했지만 부실부채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6년에는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해 전반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부실기업들이 부담하는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4%에서 2015년 30%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22%로 감소한다.

기업부문의 부채자산비율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2016년 총부채가 연평균 6% 증가한 데 비해 총자산은 연평균 8% 증가함에 따라 가중 평균 부채자산비율은 2014년 55%(부채비율 122%)에서 2016년 53%(부채비율 113%)로 감소했다.

기업별 부채자산비율에 따른 누적 부채비중 분포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좌측으로 이동해 부채자산비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채자산비율 67%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부실기업들의 부채비중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5%, 2016년 29%로 매년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자산 2조 원 이상)의 재

무 성과가 크게 개선된 반면 소기업(자산 2000억 원 이하)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과 부채자산비율 분포를 보면 2016년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소폭 개선에 그친다. 반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 분포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의 수준도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한편 부채자산비율은 2015년 개선된 이후 2016년에는 변화가 없다.

업종별로는 특히 전자전기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악화했다. 이자보상비율 기준으로는 전자전기 제조업이, 부채자산비율 기준으로는 정보통신업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전기 제조업의 가중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15.2%에서 2016년 23.5%

로 개선됐으나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부실기업의 부채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7%에서 28%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의 가중 평균 부채자산비율은 2014년 52%에서 2016년 48%로 개선됐으나 부채자산 비율 67% 이상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부채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10%에서 14%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이 지속 가능한가는 향후 금리상승 등 거시 요인에도 달려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치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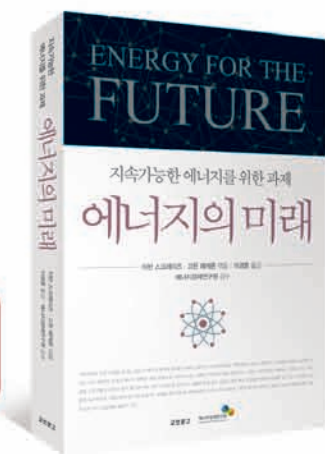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즈·고든 매케른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갑날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앨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_ 김하케탄스베,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_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적 사고를 일깨워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_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 02-3142-0484

持株社 되는 SK케미칼 몸값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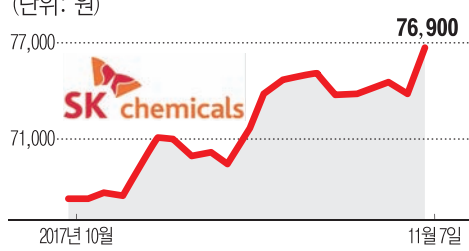
29일 거래정지, 내년 분할 재상장
한 달간 주가 14% 뛰어…“매수 권고”
기업가치 상승·실적 확대 전망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 정지일을 앞두고 몸값이 오르고 있다. 사업구조 효율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과 사업회사의 실적 개선 전망이 최근 상승의 동력이다.

SK케미칼은 이달 29일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내년 1월 5일 두 회사로 분할해 재상장한다. 지난달 27일 SK케미칼은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 1일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준속회사)와 제약·화학 부문인 SK케미칼(신설회사)로의 인적 분할을 의결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은 48대 52다.

재상장 후 SK디스커버리는 △SK가스 △SK플라즈마 △SK신택을 종속회사로, △SK건설을 관계회사로 보유하게 된다. 분할 신설회사인 SK케미칼과의 지분관계는 분할기일 전 회사의 자사주 매각·소각 과정에서 없어지게 된다. SK케미칼은 재상장 후 대주주(최창원 부회장 16.45%)가 보유한 분할 신설회사 지분을 존속회사에 현금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SK디스커버리를 정점으로 회사 보유자

SK케미칼 주가 추이



회사들을 모두 거느리는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분할 신설회사인 SK케미칼은 본연인 제약·화학 사업에 집중하고, SK가스와 SK건설과 같은 대형 투자회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요인은 지주회사로 분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SK케미칼은 거래 정지를 앞두고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에 몸값도 오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SK케미칼의 주가는 13.9% 올랐다.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는 연결 지회사 SK가스와 향후 기업공개(IPO)가 예상되는 SK플라즈마 등의 지분까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회사인 SK케미칼은 프리미엄 백신의 순차적 출시, PETG(Polyethylene Terephthalate Glycol)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률 증가, 혈우병 치료제 엠스틸라 로열티 유입 등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거래정지일 이전에 매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 mik@

CJ E&M·한진칼, 子會社 덕에 웃는다

올해 마지막 ‘IPO 大魚’ 기대

스튜디오드래곤과 진에어가 연말 IPO(기업공개) 시장 최대어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모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스튜디오드래곤은 이달 9~10일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공모희망가액은 3만900~3만5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상 공모가액은 1854억~2100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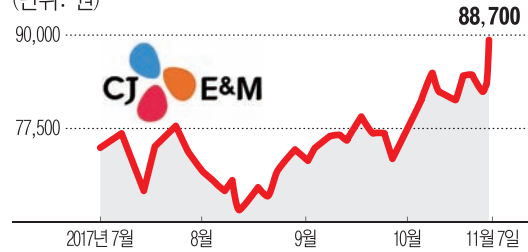
진에어는 이달 2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IPO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장 일정에 돌입한다. 공모희망가액은 2만6800~3만1800원, 예상 공모가액은 3216억~3816억 원이다.

11월에만 10개 기업이 IPO를 실시하지만, 스튜디오드래곤과 진에어는 규모와 화제성에서 볼 때 단연 관심이 집중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스튜디오드래곤은 8664억~9814억 원, 진에어는 8040억~9540억 원으로 두 기업 모두 1조 원에 육박하는 ‘몸집을 자랑한다’.

이 같은 기대감은 이들 기업의 모회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CJ E&M의 주가는 최근 급격한 우상향 추세다. 6일 장중 5% 이상 오르는 등,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8월 14일 6만7900원이던 주가는 7일 8만8700원으로 마감해 불과 3달 만에 30% 이상 상승했다.

10월 말 상승세를 보이던 한진칼은 11월 들어 조

CJ E&M 2017년 하반기 주가 추이



한진칼우 2017년 하반기 주가 추이



스튜디오드래곤·진에어, 예상 시가총액 각 1조원 육박

CJ E&M 주가 석 달간 30%↑ 한진칼우 6일 장중 30%↑

정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우선주는 여전히 급등세다. 한진칼우는 6일 장중 29.54% 상승한 2만105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3일에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주가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스튜디오드래곤은 CJ E&M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통해 2016년 5월 설립된 기업이다. 주력 사업은 드라마의 제작·편성, 드라마 판권 및 VOD(주요형비디오)의 국내외 유통이다. 이 회사는 CJ E&M의 연간 드라마 편성분 중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박정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스튜디오드래곤의 희망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CJ E&M 시가총

액의 27.3~30.9% 수준”이라며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볼 때 ‘LINE(라인)’이 상장할 때의 네이버 상황과 유사하다. 성장성이 주목되는 핵심 자회사 상장을 앞둔 모회사의 주가는 대체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한진칼 역시 자회사 진에어 상장으로 재무건전성 회복 및 보유자산 재평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 신민석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IPO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기재 투자 확대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대한항공·한진 등 상장회사와 토포츠여행·칼호텔 등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에 높다”라고 분석했다.

최두선 기자 sun@

해외 부동산펀드 규모 사상 최고치 경신

연초보다 7조 늘어 28조…저금리 영향 작년부터 가파른 성장

국내 설정된 해외부동산 펀드시장 규모가 28조 원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 스탠스에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유망한 투자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해외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공·사모 합산 기준 28조 2037억 원으로 집계됐다. 10월 한 달에만 364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펀드 설정액은 올 들어 7조 3120억 원 늘어나며 작년 같은 기간(1~10월) 규모를 500억 원가량 앞질렀다.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작년년부터다. 펀드 설정액은 2012년 4조790억 원에서 △2013년(5조9818억 원) △2014년(8조3675억 원) △2015년(12조3260억 원) △2016년(20조8917억 원)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작년에는 1년간 8조 원 넘게 자금이 들어왔다.

시장의 주체는 단연 사모펀드다. 부동산 시장 흐름이 빠르게 때문에 자금 모집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데다, 최소 가입금액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실제로 10월 말 전체

해외부동산 펀드 수는 총 383개였지만, 이 중 공모펀드는 20개에 불과하다. 올해 동일 유행에서 최대 자금을 유치한 펀드도 8월과 9월 1855억 원, 1421억 원을 모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사모 해외부동산 펀드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고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자산운용사들도 공모펀드를 선보이는 추세다. 하나자산운용은 미국 드림웍스 글로벌 본사빌딩에 투자하는 ‘하나미국LA 투자신탁1호’ 펀드를 이달 16일까지 1175억 원 규모로 모집한다. 해외부동산 펀드로는 두 번째 공모펀드다.

오은수 KB증권 멀티에셋전략팀장은 “미국과 한국이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저금리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듯하다”면서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면서 5%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중·저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진단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 에스와이패널

“베트남 건축패널 점유율 1위…2工場도 착공”

내년부터 모듈러주택·컬러강판 사업

삼성·LG 등 현지 가전제품 공장서 구매

건축자재로 쓰이는 샌드위치패널 국내 1위 업체인 에스와이패널이 해외로 무계중심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고 있다. 2013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이 회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현지공장 추가 건설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모듈러주택과 컬러강판 시장까지 개척하며 수익원 다각화까지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에게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베트남 시장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

“에스와이패널은 2013년 베트남 북쪽 흥옌 지역에 현지법인인 ‘에스와이패널비나’를 설립하고 샌드위치패널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진출 당시에는 워낙 시장 규모가 작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점차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특히 2015년부터 베트남 샌드위치패널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지 샌드위치패널 시장 동향은.

“외국 대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 만큼, 샌드위치패널 수요도 이에 비례해

급증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는 샌드위치패널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베트남 남부에 2공장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2공장 가동은 언제쯤인가. 매출 발생 시점도 궁금하다.

“베트남 2공장은 올해 6월 착공했다. 완공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로 보고 있으며, 곧바로 생산 가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공장은 샌드위치패널 이외에도 모듈러주택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쉽게 이야기해 블록형 주택으로 보면 된다. 베트남 현지에 주택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향후 시장성을 보고 모듈러주택 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신규로 추진 중인 컬러강판 사업의 현황은.

“컬러강판 사업은 또다른 현지법인인 ‘에스와이 스틸비나’를 통해 진행한다. 이 공장 역시 내년 초 가동할 예정이다.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지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제품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곧바로 매출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시종 기자 ssj@



유안타가문 대대로 전해오는

비금 세가지.

아들아 펀드에 이어

주식투자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티레이더

인포를 보내니

부디 성공투자하기를 바란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알비케이이엠디 햅틱 제품으로 車電裝시장 진출

2019년 출시 신차 적용 계획

휴대폰 카메라모듈용 자동조점 구동 장치(AF 액추에이터) 기업 알비케이이엠디가 완성차 1차벤더의 엔터테인먼트 전장(AVN)용 부품의 시제품 테스트를 시작으로 전장부품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알비케이이엠디는 완성차 1차벤더와 AVN에 적용되는 햅틱 제품의 공급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양산 준비를 마치고 2019년 출시되는 신차 모델부터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알비케이이엠디는 “햅틱제품은 향후 주요한 전자부품으로서 영역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존의 소형 진동모터를 대체할 제품으로도 기대된다”며 “이러한 시장의 추세에 따라 기술력과 선도적 위치를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알비케이이엠디의 차세대 진동모터인 'SRA(Solenoid Resonant Actuator)'가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능형 통합 컨트롤러에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자동차 라인업 확대 계획에 따라 연간 30만 대 규모로 생산이 예상된다.

지능형 통합 컨트롤러는 하나의 스위치로 자동차 내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다. 통합 컨트롤러에는 주행 중 조작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촉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햅틱 피드백이 필요하다.

알비케이이엠디는 올해 13대가 카메라용 액추에이터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 흑자전환을 이뤘다. 3분기(연결기준) 매출액 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억3000만 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알비케이이엠디는 HD햅틱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원천특허를 보유한 이머전(Immersion) 사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HD햅틱 기술을 자동차 디스플레이 및 스위치에 적용시키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전장사업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2019년 출시될 자동차 모델에도 햅틱 기술이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hura@x

삼성과 거래종료後 주가 휘청 유아이다·지디, LGD 손 잡아

LCD 유리식각 제품 등 공급
“새 계약으로 매출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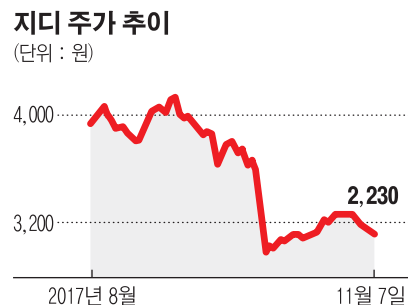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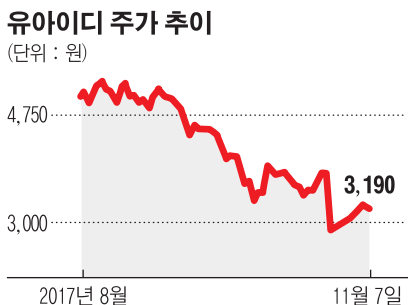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종단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유아이다와 지디가 LG디스플레이와의 계약 체결로 매출 회복에 나선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이다는 3일 거래처와의 거래종단 결정 공시를 통해 신규 개발업체 LG디스플레이와 공급계약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디도 지난달 31일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같은달 30일 LG디스플레이와 신규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유아이다는 거래처 LCD 사업비 중 감소로 인한 수주불량 중단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한 바 있다.

지디도 지난달 27일 답변공시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설을 이유로 지디 주식거래를 정지했으나 이날 1일부터 거래를 재개시켰다.

유아이다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난해 거래 매출액은 123억 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 비중 64%를 차지했다. 지난



해 지디의 삼성디스플레이 매출액은 322억 원으로 매출 비중은 99.9%에 달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양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였다. 삼성과의 거래종단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난달 31일 유아이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5% 하락했다. 지디는 거래처에 첫날인 1일 전일 대비 5.64% 하락했다.

그러나 양사는 LG디스플레이와의 신규 계약으로 매출 하락세는 일단 저지하게 됐다. 유아이다와 지디는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급하던 애플향 물량을 LG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공급되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패드 등 태블릿PC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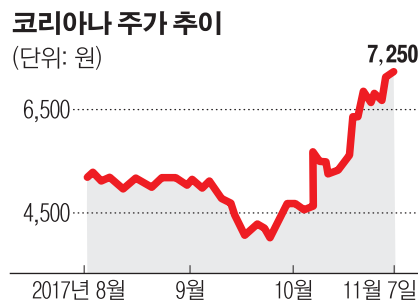
LGD스플레이가 물량을 요청하면 지디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두께를 얇게 가공하는 LCD 유리 식각(Slimming) 제

품을 유아이다에 공급한다. 유아이다는 LCD 유리 ITO 코팅 제품을 LG디스플레이에 공급, LG디스플레이가 LCD 제품을 애플에 공급하는 형태다.

양사의 삼성디스플레이 공급 중단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LCD 패널 생산 중단에 따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받던 물량 상당 부분을 LG디스플레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이다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매출 회복 및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디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업비중 감소로 매출 감소가 지속되어 당반기 말 기준 매출액이 전반기 말 대비 46.7% 감소된 상태로, LG디스플레이와의 신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리아나 ‘더마코스메틱’ 中 상륙

현지 ‘카울라’와 협력… 11일 광군제 맞아 게임사와 이벤트도

코리아나가 중국 대형 온라인 유통사 카울라와 컬래버해 더마코스메틱 제품을 이날 론칭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8일 코리아나 관계자는 “이달 중국 온라인 카울라와 컬래버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AMPL:N 브랜드를 론칭한다”며 “중국 VIP 온라인 전용 브랜드 프리엔제(PREANGE) 론칭과 함께 중국 내 1000개 대리상을 운영 중인 자인상해를 통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마코스메틱은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화장품(Cosmetic)의 합성어로, 의약품 수준의 가능성이 접목된 화장품을 말한다. 국

내에선 약국화장품, 피부과화장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LG생활건강이 태극제약을 인수한 것도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화장품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 때문이다. 융합연구정책센터에 따르면 세계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0조 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1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고성장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화장품, CSA코스믹, 한국화장품 제조 등과 함께 화장품 관련주인 코리

아나는 더마코스메틱 AMPL:N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코리아나는 11일 중국 광군제를 맞아 중국 온라인 카울라에서 온라인 게임회사와 컬래버해 화장품 증정 프로모션(행사명: DREAM IN THE CITY)을 진행 중이다. 또 코리아나 운영 브랜드에 대해 할인 프로모션 및 제품 증정 행사를 벌인다. 성경진 기자 skj78@

경영진 잇단 지분 매도에 실적 악화까지…

오이솔루션 株價 16.4% 급락

(최근 15거래일)

공매도 악재 투자자 ‘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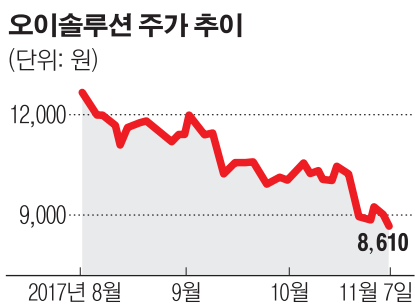
오이솔루션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경영진의 잇따른 지분 매도 소식에 공매도 물량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악화까지 겹치며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이솔루션은 861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4.76%(430원) 내렸다. 최근 15거래일 동안 하락일은 12일, 그 사이 주가는 16.4% 떨어졌다. 전날에는 8500원을 기록해 52주 신저가도 기록했다.

오이솔루션은 전자, 전기,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기업으로 인증됐고, 같은 해 지식경제부로부터 100호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경영진의 지분 매도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지난달 16일 추안구 대표이사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 72%주, 17일 4000주, 23일 7000주를 장내 매도한다. 이에 따라 추 대표의 오이솔루션 지분은 4.19%에서 3.95%로 줄어든다. 추 대표는 2003년 8월부터 박용관 씨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추 대표는 매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또다시 2만2000주를 팔아치운 데 이어, 26일 8793주, 27일 1만3000주, 30일 2218주 등 4일에 걸쳐 총 4만6011주를 매도한다. 이에 따라 추 대표의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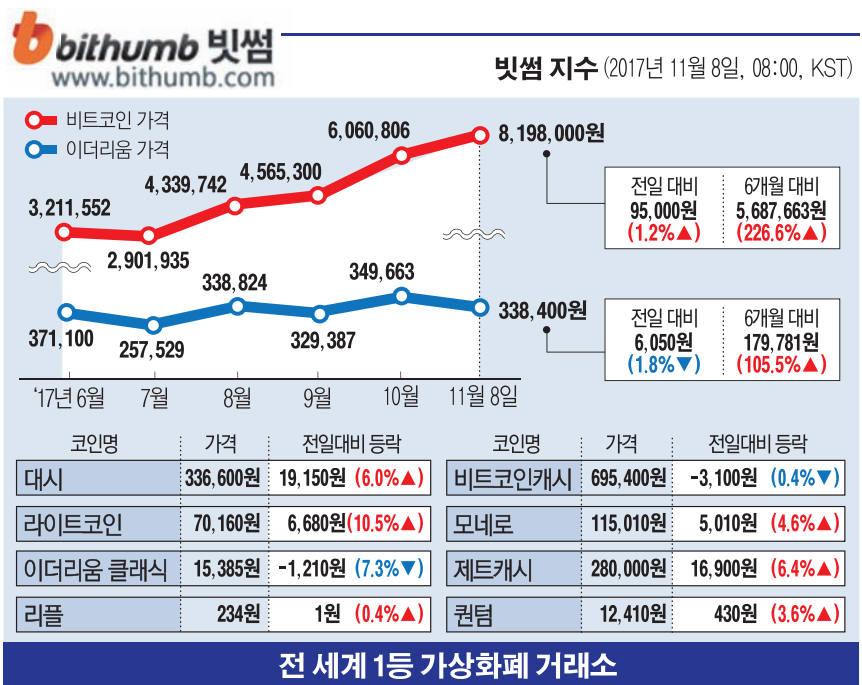


주식은 25만9967주, 전체의 3.35%로 떨어졌다.

다른 임원도 매도 행진에 동참했다. 기획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권창순 전무도 4만50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권 전무 지분은 기존 1.39%에서 0.80%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여기에 공매도도 가세했다. 드문드문 있던 공매도가 10월 말 갑자기 집중된 것. 지난달 26일 1만8026주(1억7500만 원 규모)가 등장했고, 30일에는 1628주(1400만 원 규모)가 나왔다. 이달 2일과 3일에도 각각 4834주(4400만 원 규모), 154주(140만 원 규모)가 거래됐다.

실적 악화로 악재로 작용했다. 전날 오이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6억2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7억1800만 원으로 11.9%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15억7600만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남주현 기자 jooh@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취미자산가들의 향연

- PART1. 두 글자로 본 취미 - 낭송, 당구, 서예, 바둑
- PART2. 세 글자로 본 취미 - 퍼커션, 도슨트, 글쓰기, 트레킹
- PART3. 네 글자로 본 취미 - 모델링, 민요, 장구, 파크골프
- PART4. 다섯 글자로 본 취미 - 캘리그래피, 댄스스포츠
- PART5. 수익과 봉사활동 두 마리 토끼 잡다
- PART6. 취미의 사회적 관계,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가

제2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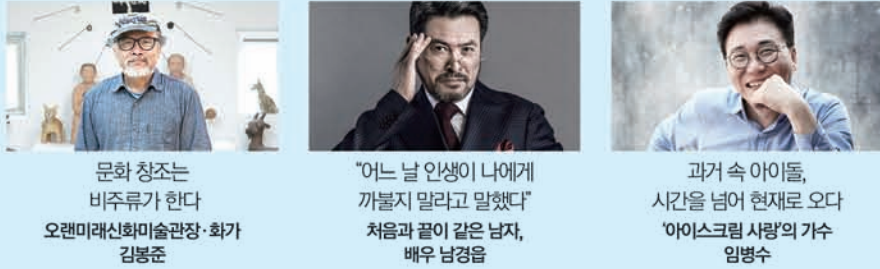
깎고, 자르고, 붙이고…
나무에 생명 불어넣는 직업, 목공예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 중 하나.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시니어가 은퇴 후 원하는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찾을 때 단골로 선택되는 분야가 바로 목공예다. 똑딱똑딱 제품을 만들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완성된 제품을 보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또 솜씨가 좋다면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즐겁다, 물 만난 고기처럼
삶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아마도 누구나 현재의 삶과 다른 쪽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종년 이후의 귀촌은 머잖아 닥쳐올 노년, 그 쓸쓸한 종착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절박한 기색을 머금는다. 노후의 안정과 평안을 성취하려는 의도엔 '귀사'라고 할 만한 결연한 모두가 서려 있기 십상이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몸을 따스하게 녹여줄 휘귀 한 상

추운 날엔 유독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요리가 입맛을 자극한다. 중국식 사브사브인 화궤는 이런 날씨에 제격이다. 따끈한 국물에 알개 썬 고기와 채소를 익혀 한입 먹어보자. 고기가 익듯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다. 휘귀 본연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곳, '마리'를 소개한다.



이봉규 닥터 데이트
아직도 소녀처럼 청순한 진미령
가수 진미령은 한 설문조사에서 재혼하고 싶은 여자 1위에 뽑힌 적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이다. 아직도 소녀 같은 진미령이 내 나이와 비슷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아직도 잘룩한 허리에 조약만 한 얼굴과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세시하하면서 청순한 소녀와 마주하고 가을 밤새를 느꼈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강신영·김수영·박애연·박종섭·송운영·이경숙·장영희 동년기자
치매에 대한 회포

SAMSUNG

저염김치처럼 까다로운 김치도
감자, 바나나처럼 보관이 어려운 식재료도
제각각 섬세하게 지켜냅니다
지금까지의 김치냉장고를 뛰어넘어
김치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시작 삼성 김치플러스



모델명 : RQ57M9381M1 |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소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가지 맞춤보관]

저염김치는 물론
감자, 바나나처럼
까다로운 식재료도
제각각 신선하게



[전문숙성모드]

오래 먹을 김치는
저온쿨링속성으로
별미김치는 김치별
맞춤숙성으로 더 맛있게



[전문수납공간]

2L 생수병은
빅도어가드에
부피 큰 식재료는
와이드냉장실에



[초정온 Full 메탈쿨링]

4면 메탈쿨링으로
냉기를 꽉 잡아
김치맛을
땅속처럼 변함없이

삼성전자 **S'골드러시**
김치플러스 페스티벌
2017.11.1 - 2017.11.30

[혜택 01. 김장비 최대 30만 원 지원] 11월 중 김치냉장고 구입 시 김장비 혜택 제공

[혜택 02. 구형제품 토탈보상솔루션] 최대 20만 원 스마트 체인지 보상 or 기존제품 무상이전 서비스
(사용하시던 김치냉장고 반납 시 조건) (단, 배송장소 기준 반경 50km 내 이동 조건)

※18년형 스탠드 제품 중 행사 모델 구입에 한함

*매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행사 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 상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행사는 행사 매장 내 해당 모델 구매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보상금 지급방법은 구매처에 따라 상이합니다